

교정공제회원

# 법률방어권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내용 : 회원이 직무 수행 중 형사고소·민사소송을 당하였을 때 변호사 선임료를 무이자 대여함으로써 실질적 방어권 행사 지원
  - ※ 불기소, 무죄시 선임료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환수, 유죄 선고시는 공제회 전액 부담
- 지원 금액 : 심급별(1,2심) 1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교정공제회 가입 회원

## 2. 신청 절차

- 회원 신청 : 회원이 직접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기관 추천 :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정공제회 신청

## 3. 심의 및 대여금액(선임료) 결정

- 심의위원회 : 공제회 임원급을 포함한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 기준 : 신청한 사건의 업무 관련성, 공제회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4. 이용 절차 및 보험금 처리

- ① 대여계약 체결 : 회원과 공제회가 변호사 선임료 대여 계약 체결
- ② 변호사 선임 : 회원은 공제회로부터 배정된 변호사와 선임 계약 체결
- ③ 대여금(선임료) 지급 : 공제회가 해당 변호사에게 대여금(선임료) 직접 지급
- ④ 보험금 청구 :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납입 내역을 받아 '공무원 책임보험' 운용사에 제출
- ⑤ 보험금 반환 : 회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즉시 공제회에 대여금(선임료) 반환



문의전화 ☎ 02-584-5613 (내선 4002, 4003)



교정  
vol.595.  
2025. December  
12

Embrace

 법무부 교정본부



# Contents

vol.595\_2025. December



## 아름다운 동행

### 04 함께하는 길

아듀! \_\_ 을사년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 08 생각의 창

함께 버티는 힘,  
함께 회복하는 조직  
최신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위

### 12 우리는 한마음

성실하게 쌓은 교정의 품격  
퇴임 후 ‘한결 더’ 평온하게  
인터뷰 | 송창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천안지회 회원

## 교정 이야기

### 16 교정 이모저모 ①

제11대 이홍연 교정본부장 취임  
현장·정책 아우른 실무형 리더

### 18 교정 이모저모 ②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  
한국이 주도한 국제 교정협력의 장(場)

### 20 교정 기관

백여 년 역사 위에 쌓인 엄정함  
재사회화의 길목에 깃든 따뜻함  
목포교도소

### 26 교정과 사람들

격리의 공간을 회복의 공간으로  
단절의 시간을 변화의 시간으로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

## 교정 아카이브

### 30 교정 포커스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하)  
정재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위

### 52 교정 논문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이재민 대구교도소 보안과 교정관

### 72 교정 리포트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재범 촉발 특성(하)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 교정 뉴스

### 86 교정본부 NEWS

### 88 교정기관 NEWS

### 95 모범 공무원

### 96 칼럼 모집



## COVER STORY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순간들처럼, 교정의 길 위에 쌓여 온 시간 역시 서로를 감싸며 이어져 왔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포용을 넘어, 다시 이어주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격려이자 응원입니다. 또한 상처를 살피고, 회복의 가능성을 붙들며,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겨울을 맞이하는 이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에 한층 넓게 마음을 열어하겠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12월 9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s://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s://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https://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듀! — 을사년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누가 아니랄까봐 그 이름에 걸맞게도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던 2025, 을사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연말연시란 일상에 치어 놓친 이들을 되찾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들 말하지만, 그 손짓 마저 들어올리기가 마냥 무거우리만큼 지나치고 버터낸 지난 한 해의 세상사, 세상이 사람들에게 던져준 생채기는 정녕 가당찮고 힘에 부쳤던 것만 같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하를 뒤엎고 휩쓸었던 기후재난이 그러했고, 끊임없이 맞서고 뒤틀리며 우울과 갈등의 산물을 배출했던, 오직 일상이 사투였던 정국의 황폐함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역사가 어느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선 크든 작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했거늘, 그러나 어느 편 어느 누구도 진술한 소통과 언어를 망설인 채 저무는 한 해를 망연자실 지켜볼 따름입니다. 국민의 심층심리 속에 자리 잡은 불신을 해소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버림받고 있는 허다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 주는 참된 정책 발상의 뿌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올해 봄은 그야말로 불타고 또 타올랐습니다. 영·호남, 충청 등 삼남지방의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연쇄적으로 발화·확산된 불길의 주저 없이 산하를 삼켰으니, 숲들은 삼시간에 사그러져 갔고 능선과 계곡마다 상실의 수렁인양 흉흉하게 재들이 흩날렸습니다.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이 물경 104,000헥타르(ha)에 이르렀고 보니, 수천 건의 주택, 공장, 농가 등이 손실·파손되었음은 물론 이재민 또한 37,000여 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산하를 집어삼킨 봄날의 화마로 모든 것이 재로 남았던 숲의 냄새와 이재민들의 마음의 그늘음이 몇 달간의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사그러지다가 싶더니, 웬걸 여름이 되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난데없이 물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과 들의 잿더미와 탄내가 채 말끔히 가시지 못했고, 삶이 잿빛이 된 이재민들이 잃어버린 그들 삶의 색깔을 미처 되찾기도 전에 그 잔해를 짓기며 다시 큰 물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유실되었으며, 갯더미 깔린 땅 위로 흙탕물이 뒤엉켜 넘쳐났습니다. ‘타오름과 잠김, 뜨거움과 차가움, 소멸과 범람’이 서로의 자리를 넘나들며 세상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다시 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면 1905년 덕수궁 중랑전의 국망(을사늑약)의 비통함이 못내 한이 되어 뒤늦게 눈물로 쏟아지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시대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전향적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에게겐 묵묵히 해 나가야만 하는 일들이 많을진데, 재난의 잔흔이 낱자한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정국은 일상을 잠식하는 소요와 충돌을 쉽사리 잠재울 줄 몰랐습니다. 해결과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치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란 그 구성원이 공동선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아무렴 공동체가 스스로를 돌보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쌓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의 간지가 워낙 가벼워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현상을 보아도 언제나 자기 지역, 자기편의 입장에서만 말귀를 알아듣고, 또 그만큼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정신문화의 음험한 현주소에 마냥 넋더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가 사라지고, 삶의



격식과 생의 올바른 규범이 상처를 입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유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을사년의 첫머리를 교정지와 함께하며, ‘어쩔 새해에는 그야말로 기쁨과 희망을 만끽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언급했던 것을 성급하고 무망한 토설이었다고 이제 와 민망해 하지는 결코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은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기후재난과 정국 혼란의 와중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교도관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산야를 불태우고 접근하는 화마에 대응하여 위험 지역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신속히 타 교정시설로 이송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단 한 건의 화재 피해가 없도록 자체소방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고 확행했었습니다.

또한 시국과 관련한 정치인의 수용·계호 등 예민한 문제에 봉착하였어도, 정치권의 무리한 요청과 공세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균형을 가슴에 안고 의법조치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응축된 교정의 위상과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점도 자랑스러운 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변화무쌍한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실을 오롯이 받아들이되,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각오를 공고히 하여 교정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냉철한 결기와 자각이 스스로를 받쳐 줘야만 할 것입니다. 내려지는 을사년 망각의 커튼일랑 미련 없이 뒤로하고, 인간에게 허용된 절대적인 힘인 희망을 새해의 교정에 담아 나갑시다. 꽃꽂한 배짱으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야생의 터를 빈틈없이 갈무리해 나갑시다.

젊은 시절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는 친구와 송년을 맞아 술잔을 나눌 때였습니다. ‘저녁이 와서 흠어진 어둠을 불러 모으는데’, 거나하게 술에 취한 그 친구가 공수부대 장교가 아니랄까봐 생뚱맞게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수부대원은 죽지 않는다. 지옥에서 집합할 뿐이다.”

그 말이 우스워 한참을 웃자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문득 내 입에서 터져 나와 또 한참을 돌이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교도관은 죽지 않는다. 지옥에 집합한 녀석들을 지킬 뿐이다.”

을사년 한 해, 줄필을 감싸안아 준 교정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어질 시간들을 인내하며 튼실히 교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또 존경합니다.

아듀! 을사년.



# 함께 버티는 힘, — 함께 회복하는 조직



최신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위

교정의 현장은 오늘도 팽팽한 긴장 속에 돌아갑니다. 수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사건이 터지고, 수습하고, 보고하고... 근무를 마치면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아직 근무 중입니다. 혹시 퇴근 후에도 눈앞에 CCTV화면이 돌아가거나 컷가에 비상벨 소리가 들리시나요?

사실 교정공무원들은 버티기의 달인입니다. 웬만한 상황에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피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도관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순간 버틴다는 게 당연해져 버렸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버티는 건 대단한 힘이지만, 버텨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는 잘 버틴다’ → ‘이제 아무렇지 않다’ → ‘아무 감정도 안 든다’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회복이 뒤따르지 않는 버티는 결국 마음의 근육을 닳게 만듭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피로가 쌓여갑니다. 버틴다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멈추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힘보다 회복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붙잡고,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출발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괜찮아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피로가 쌓여갑니다. 버틴다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멈추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는 힘보다 회복하는 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은 틀려도 괜찮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공기. 그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갈 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심리적 안전감은 틀려도 괜찮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공기. 그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조직은 특성상 통제와 질서가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통제나 질서보다는 공감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짧은 눈빛과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심리적 안전감이 있는 조직이 진짜 강한 조직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교정본부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심리상담 마음나래’와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나래는 단순한 상담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 고를 수 있는 작은 쉼표 같은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교정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문제없어서 상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한 번 받아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마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받는 ‘전문적 자기관리’입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신규교도관,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며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동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겨납니다. 현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버티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중 우리의 마음 자원은 ‘조직 연대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 강함이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회복할 줄 아는 힘입니다. 서로를 챙기고, 지쳐 있는 동료에게 말 한마디 건네며, 내 마음도 돌보는 일. 그것이 진짜 강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동료에게 가볍게 물어보세요. “요즘 괜찮아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조직에는 온기가 됩니다.



# 성실하게 쌓은 교정의 품격 퇴임 후 ‘한결 더’ 평온하게

송창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천안지회 회원

## INTERVIEW

가을빛 깊게 내린 숲길은 오래 걸어온 이의 시간처럼 온화하고 그윽하다. 송창호 회원(대한민국교정동우회 천안지회)이 발을 딛고 선 자리로 낮게 깔린 낙엽마저 그 34년 교정 인생과, 퇴직 후 10여 년의 쉽 없는 발걸음을 가만히 관망하는 듯했다. 도주범을 뒤쫓던 젊은 날의 긴장부터 비행청소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던 열정을 지나, 천안지회를 다시 세우느라 분주했던 최근까지, 그의 길은 ‘한결같이’ 묵묵하고 단정하기만 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교정의 자리에 스며들기

“한결같다”는 말의 ‘한결’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다는 뜻을 지닌다. 동시에 “전보다 나아졌다”는 조용한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고요한 성찰을 머금은 송 회원의 시간은 바로 이 두 접의 ‘한결’로 설명된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태도는 늘 한결같았고, 그 변함없음이 쌓여 이룬 현재의 삶은 어느새 한결 평온해져 있었다.

1953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송 회원은 농사 짓는 부모님을 살뜰히 돕는 장남이었다. 자연스레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는 묵직한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감이라는 감정은 자칫 ‘주체적 소망’과 거리를 만들고, 이성적으로 세운 인생 계획 속에서 그 간극은 더 크게 느껴지기 쉽다. 당연히 송 회원도 그랬다. 서둘러 잡은 진로가 교정의 길이었으나, 성향이나 적성과는 무관했을 터.

“1977년 만기 제대 후 곧바로 공직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 신문을 뒤져 시험 일정을 찾았죠. 바로 응시할 수 있는 분야가 ‘교정직’이더라고요. 1978년 1월에 합격해, 그해 10월 스물네 살의 나이로 홍성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뒀습니다.”

선망하던 직업군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주

어진 길을 외면하거나 흔들릴 성정도 아니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갔을 뿐인데, 고맙게도 그 과정 자체가 삶을 이해하고 사람을 향한 눈길을 한층 더 여물게 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익히게 된 작은 경험들이 책임감과 묵묵함이라는 기본값 위에 차곡차곡 더해지면서, 송 회원에게는 시나브로 위기 속 작은 징후를 알아채는 촉(觸)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조용한 내공이 쌓였을 것이다. 그런 내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던 1985년 여름의 기억을, 송 회원은 생생히 들려줬다.

“영농 작업장에 나갔던 수용자 한 명이 달아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어요. 잠복 지시를 받고 동료와 담양으로 나가게 됐는데, ‘열차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곧바로 천안행 완행열차에 올라 객실을 훑었죠. 수용자의 얼굴을 몰랐던 게 도움이 됐는지 수건을 두르고 연장까지 든, 영락없이 농사꾼의 모습을 한 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니라던 동료가 한참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기에 확신이 서서 즉시 검거했습니다.”

### 어린 수용자에 ‘변화’의 씨앗 심기

세월이 흐른 뒤, 기차 안에서의 과감한 검거는 송 회원의 교정 인생에 또 한번의 기폭제를 가져다준다. 특별승진제도가 교정공무원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던 1992년, 7년 전의 공로로 특별승진 대상자에 오른 것이다. 승진과 동시에 천안소년교도소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천 명이 넘는 소년 수용자를 맡게 됐어요. 더 민감하고, 더 직설적이며, 때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그야말로 ‘취약구역’이나 다름없죠. 손톱깎이 공장, 전자부품 회사, 벽돌 공장 등 가장 힘들고 기피되는 현장을 그들과 함께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 얻는 게 있다’는 삶의 공식을 체득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땀 흘린 만큼, 그에 맞는 끼니와 간식을 챙기기 위해 별의별 부탁과 설득을 다 했으니까요.”

작든 크든, 노력의 결과가 눈앞에 돌아오는 경험은 아이들을 하루씩 성숙하게 만들었다. 고



작 밥 한 끼일지는 몰라도, 그 한 끼에서 시작된 위로와 신뢰는 어린 수용자들을 생동하게 했다. 조롱과 체념으로 굳어 있던 표정이 누그러지고, 경계하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엇나가던 언행을 거두더니, 그 얼굴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믿는 기운이 차츰 자리를 잡았다. 한때 ‘식사 제공’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영세하던 업체는 신규라인을 증설할 만큼 성장하기도 했다. 비록 일부 작업장의 성장이었지만, 그 안에 소년수와 교도관이 함께 흘린 성실과 신뢰의 땀방울이 깊이 내재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기에는 충분했다.

### 교육으로 가능성 되살리기

변화의 기미가 눈으로 보이면,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송 회원도 ‘지금도 교육을 넣을 때’라는 판단을 내렸다. 마침 기관에서도 소년 수용자들의 인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던 시기였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그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자연스럽게 맡겨지기도 했다.

송 회원이 설계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이들의 사고와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구조화된 ‘과정’에 가까웠다. 기초반에서는 하루 5자씩 한자를 익히며 생각을 정리하게 했고, 중급반에서는 《명심보감》을 풀어 읽으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끌었다. 또 상급반에는 노력의 지속성과 성취감이 연결되는 경험을 주기 위한 장치로 일본어 과정을 구성했다.

“한자 학습은 부수(部首)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사람인변(人)을 익히다 보면,



두 사람이 의지해 서로 도우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연상하게 되죠. 생각이 이어지고 깊어지면 그 행동이 나오잖아요. 또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성격을, 성격은 인성을 순차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교정 인생은 제게 그 과정을 증명해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물론, ‘교정이란,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은, 밥 한 끼와 글자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를 통해 사람답게 서가는 아이들을 보며 진작 깨달았고요.”

### 교정동우회 소식

#### 통영지회 창립행사 개최

통영지회(지회장 김정섭, 사무국장 고영기)는 지난 11월 15일 회원과 가족, 내빈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통영 지역 교정 가족들이 하나의 지회로 결속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송영삼 회장이 참석, 지회 창립을 축하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지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 전국지회장·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창립 42주년 및 법정단체 지정 12주년을 기념, 전국 지회장·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정동우회의 역할과 활동 기반을 재정비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교정동우회로 다시 이은 ‘교정의 길’

송 회원은 2012년 12월, 34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그 열심 가득했던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함께하자”는 선배들의 손길은 그를 또 다른 교정 현장에 세워 놓았다.

“2013년 1월 곧바로 천안지회 교정동우회에 가입했어요. ‘감사’ 역을 맡아 재정과 운영을 챙기며 2년을 보냈더니 이번엔 회장직이 주어지더군요. 그로부터 10년, 지난해까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신규 회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애경사를 챙기며 유대를 다지고, 회칙과 재정 체계를 정비해 모임의 기반을 다시 세웠어요. 재임 초 38명이던 수도 퇴임 무렵 76명으로 꺾충 뛰었고요. 지금은 고문으로서, 현 회장을 응원하며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익숙해지면 저도 또 적극적으로 동우회 활동에 나서려고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쌓아 올린 단단한 시간들. 멈춘 것은 근무 연수일 뿐 송 회원의 교정 인생은 여전히 한창의 시절이다. 마치 더 짙어지고, 더 따뜻해지는 깊은 가을빛처럼.





## 제11대 이홍연 교정본부장 취임 현장·정책 아우른 실무형 리더

제11대 이홍연 교정본부장이 취임했다. 약 5개월간 공석이던 교정본부의 기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마침내 교정행정의 방향성과 조직 안정화에 새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정통 교정관료가 걸어온 실무의 길

지난 11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수받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후, 공식 행보는 취임 다음날인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에 참석해 주요 의제 논의와 국제 교정협력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1992년 7급 공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 교정본부장은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하며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0년 충주구치소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조직 효율화와 수용자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운영을 펼쳤고, 같은 해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으로 이동해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을 이끌었다. 이후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교정정책단장을 맡으며 교정행정의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이 교정본부장은 보기 드문 입체적 경력의 소유자로 꼽힌다.

### 현장 이해와 정책 설계의 조화

이 교정본부장의 행정 스타일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추진력’으로 요약된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모두 경험하며 현장의 애로와 조직의 현실을 몸으로 익혔고, 복지·보안·수용관리·조직운영 등 다양한 정책 개선에 참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교정정책단장 재임 시기에는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 인권 기반 복지정책 설계 등 교정정책의 방향성을 선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학적 분석력과 실무 중심의 현장 감각이 겸비해 인력 운영, 예산 배분, 시설 개선 등에서 균형감 있는 판단을 보여왔다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한다.

### 교정행정의 새로운 방향

이 교정본부장은 취임 이후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처우향상 ▲과밀수용 완화 ▲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교정시설 과밀 문제, 인력 피로 누적, 재범률 관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정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겠다”면서 “제복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처우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 한국이 주도한 국제 교정협력의 장(場)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가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우리 교정본부가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정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환점이 됐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 22개국 한 자리에, 한국 교정행정 위상 세계로

이번 회의에는 호주·일본·중국·베트남 등 22개국 교정국장을 비롯한 해외 대표 145명과 ICRC, UNAFEL, UNODC, ICPA 등 4개 국제기구 관계자 7명이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교정 본부장과 교정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 국제 교정 행정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17년 제37차 피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차기 개최국으로 확정된 이후 준비해 온 이번 회의는 국제 교정협력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교정행정을 만든다”라는 취지를 담아 개발한 공식 BI는 영문 APCCA 로고를 형상화한 한글 자음 ‘ㅅ·ㅁ·ㅈ’과 모음 ‘ㅣ’에 태극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개최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사의 메시지와 상징성을 한층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라는 슬로건 역시 한글 창제의 정신을 현대적 교정행정의 혁신과 연결, 서울대회의 비전을 담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 의제 논의 및 기관 방문 등 실무 초점 진행

이번 제43차 APCCA는 개회식을 중심으로 본회의와 기관 방문, 문화 체험 등 균형 있는 일정으로 구



성됐다. 11월 10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업무회의의 1을 진행한 뒤 의제 1을 단독 논의했고, 11일에는 하루 동안 의제 2·3·4·5를 모두 다루는 집중 세션이 진행됐다. 이어 12일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3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며 대한민국 교정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러한 구성은 개회식 직후 핵심 의제를 신속히 논의하고, 이후 기간 현장 방문에 집중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려 했던 APCCA준비기획단의 세심한 운영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의 5개의 의제는 ▲국가별 교정의 도전과 과제 ▲자원과 예산의 효율성 ▲교정행정의 국제협력 ▲교정시설 내 약자 보호 ▲약물, 알코올 및 도박 중독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 등이다.



# 백여 년 역사 위에 쌓인 엄정함 재사회화의 길목에 깃든 따듯함

목포교도소

목포교도소의 역사는 근대 격변기 속에서 시작된 백년의 서사다. 일제강점기 통감부 체제 아래 광주감옥 목포분감으로 출발한 이 기관은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역할과 이름을 바꾸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엄정한 규율과 인권 보호, 지역 산업과 맞닿은 직업훈련,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까지, 오랜 시간 쌓인 교정의 경험 위에 다시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목포교도소의 오늘을 따라가 본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근대의 문턱에서 시작된 백년 서사

목포교도소의 역사는 근대 격변기와 함께 시작됐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전국 일본 영사관을 통감부 이사청으로 전환하고, 감옥 사무를 포함한 영사 기능을 모두 관할 아래 두었다. 이어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 사범·감옥권까지 장악한 뒤, 당해 10월 통감부령 제31호를 통해 전국에 9개 감옥과 9개 분감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감옥 목포분감이 신설되었으며, 그해 11월 내각 고시 제33호에 따라 기존 목포·무안 지역 감옥과 개항장 이사청 감옥이 폐지되면서 목포분감이 공식적인 사무를 시작했다.

개청 이후 목포분감은 기존 행정관청 부설 형태를 벗어나 독립된 감옥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수감자 증가로 1910년과 1911년 두 차례의 증축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 1914년 산정리(현 목포시 산정동)로 이전했다. 이후 3·1운동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수용자가 급증하고, 1920년 10월 조선인에게 적용되던 태형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목포분감은 광주감옥에서 분리되며 ‘목포감옥’으로 승격됐다.

1923년에는 ‘목포형무소’로 개칭했으며, 1961년 형법 개정에도 따라 그 명칭은 ‘목포교도소’로 바뀌었다. 약 2년에 걸친 이전 공사를 거쳐 현재 위치인 무안군 일로읍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89년 11월의 일이다. 오늘날의 목포교도소는 이러한 긴 역사적 변천을 품은 채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sup>1)</sup>

### 엄격한 질서 넘어, ‘인간’을 지키는 교정 기준

목포교도소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질서와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교정행정을 실천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의 작은 규율 하나, 사소한 생활 동선 하나까지 면밀히 살피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거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동순찰팀의 순찰을 강화하고,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대가 즉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규명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법령에 따라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엄정함’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일상속에서 구현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마약류 수용자 관리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직원들은 중독심리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차원에서는 마약류 사범 대상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며 전문 대응 체계 강화에 힘쓴다. 목포교도소의 이 같은 노력은 ‘인권 보호’라는 또 하나의 원칙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매년 상·하반기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 아래 신중히 사

용한다. 모든 조사 과정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고자 법무부의 가석방 확대 정책에 발맞춰 대상자를 적극 선별, 하며 인권·안전·재사회화의 균형을 모색하는 일도 핵심 과제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자연스럽게 수용환경 개선이라는 실천적 노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목포교도소는 최근 여러 해에 걸쳐 구조적 과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수용동 신축으로 기본 생활공간을 확충한 것은 물론, 고령 수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휴한기에 취약한 거실 난방시설을 전면 교체했으며, 노후 수용동의 외벽 단열공사 시행으로 혹서기·혹한기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바닥형 사물함을 벽걸이형으로 교체하며 생활



1) 목포교도소, 『목포교도소 100년사』, 2009.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목포교도소는 심리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수용자의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동기 없는 범죄 등 다양한 사범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연계,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면서 재범 위험 요인에 대한 다층적 관리에 주력한다. 즉 수용자의 일상 환경과 내면의 안정이 조화를 이룰 때, 교정의 목적이 비로소 가장 온전한 형태로 실현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노력이다.

### 지역과 맞닿은 기술, 사회복귀의 발판으로

교정의 환경을 가다듬는 노력은 자연히 수용자의 내일을 준비하는 직업훈련과 교화 프로그램의 내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포교도소 직업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산업 구조와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취업 연계형 교육'이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건축설계시공, 농업기계

정비, 용접 과정은 모두 출소 후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특히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가운데 농업기계정비 과정은 무안군이라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국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농기계 정비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교정시설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실질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설계시공과 용접 과정은 기초기술을 익히는 양성과정에서 출발해 중·고급 기능을 다지는 숙련과정까지 이어지며, 훈련생들의 기술적 깊이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준다. 특히 용접 과정은 목포 지역 조선업체와 협업해 훈련 수료자의 출소 직후 취업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다. 실제로 훈련생들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교정 직업훈련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 '협력'의 가치로 함께 만들어 가는 변화

목포교도소의 조직문화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열린 소통을 중심으로 둔다. 직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때 다양한 관점이 살아나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목포교도소는 기관장·과장 중심의 상명하달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과 주 1회 '소통의 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 직장 내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 직원 간 유대와 화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점 역시 목포교도소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문화는 오랜 전통인 '동료애'로 이어지며, 선배 직원은 후배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후배는 선배들의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정공무원의 길을 배워간다.

지역사회 협력도 기관 운영의 중요한 축이다. 기관

개방과 참관행사로 교정행정을 투명하게 소개하고, 지역 아동복지시설 방문, 인근 무안중학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한다.

이러한 조직문화와 지역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목포교도소는 앞으로의 방향 역시 '함께 성장하는 교정환경'에 맞추고 있다. 1989년 준공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용환경 개선과 직원 편의시설 확충, 비상대기숙소 현대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회복귀 성공률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대민봉사활동과 재난구호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교정시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 발전 방향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자 한다.





# 격리의 공간을 회복의 공간으로 단절의 시간을 변화의 시간으로

##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

교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에 있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누군가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으며,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힘을 기르는 그 과정은 개인이나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시간 싸움’이다.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이러한 변화의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부서로, 수용자의 내면 회복부터 가족관계 재건, 출소 후 사회 정착까지 ‘복귀의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하며 그 필요를 채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변화를 위한 모두의 움직임

교도소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핵심 기관이다. 그렇기에 교정 시설의 본질적 역할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일정 기간 사회와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그 시간을 ‘단절의 시간’이 아닌 ‘변화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은 학습 지원, 직업기술 교육,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활 과정들을 운영하며, 수용자의 자존감과 자립 역량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킨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듯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시 사회로 걸어 나갈 힘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회로의 복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준비시키며 끝까지 동행하는 부서가 바로 사회복귀과다.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의 업무는 크게 사회적처우팀과 교육·교화팀으로 나뉜다. 사회적처우팀은 서신·귀휴 관리부터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시간 운영까지 수용자와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보라미 봉사단 운영, 교화방송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내부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 외부 사회와 보다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작은 창구를 마련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교화팀은 수용자의 지식과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자비구매도서·신문 지원과 비치도서 대여로 사회적 소통을 돕고, 독서치유·긍정심리·대인관계 회복 교육 등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집회와 교리지도, 교정위원 멘토링데이, 자매결연을 통해 심성순화의 기회를 넓히고, 검정고시·학사고시반, 서예 활동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도 한다.

이처럼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사회복귀’라는 본연의 이름 그대로, 한 사람의 변화가 실제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가족’ 토대 삼고 ‘변화’와 ‘회복’에 주력

수용자가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복귀란 “단순히 교도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게 된다. 또한 그 변화의 토대를 ‘가족’이라 믿는 것은, 가족이야말로 수용자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망이자 사회복귀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귀과는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끊어졌던 마음의 연결을 다시 잇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인성교육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다. 내적 변화와 관계 회복이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의 핵심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의 차별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선명해졌다고 한다. 팬데믹은 외부 교정자원을 사실상 멈춰 세웠고, 많은 교정시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중단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멈추지 않았다. 130여 명의 교정협의회와 즉각적으로 협력 체계를 재정비했으며, 멘토링데이와 자매결연 활동을 다시 세워 사회복귀 지원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 수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천주교 레지오 상담과 멘토링데이를 여성 수용자까지 과감히 확대한 것은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였다. 소수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났던 여성 수용자에게 동등한 교화·상담 기회를 보장하며, “모든 수용자에게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실천으로 증명해 낸 셈이다. “누구나, 반드시, 다시 서야 한다”는 목포교도소의 이렇듯 명료한 철학은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더욱 강하게 증명되고 있다.

### 더 단단한 내일 위한 협력 동행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수용자의 내면 회복과 사회적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70시간 집중인성교육, 가족캠프·가족만남 프로그램, 검정고시·독학사 과정, 문화·예술 활동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감사쓰기·감정조절·대인관계 회복 등 자기 성찰을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수용자의 변화 의지를 살려내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지지망을 복원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이를 조력한다. 또한 무기수용자·무연고자를 위한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는 정서 상담을 통해 안정적 수용생활을 돕는 대표적 교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를 위한 석방 전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사회복귀 정책 안 내, 재범방지·준법 교육을 포함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심리상담을 즉시 연계해 정서 안정과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해 채무조정, 신용관리, 직업·주거 지원 정보 제공으로 위험 요인을 완화하고, 연 2회 취·창업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인 취업분야위원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까지 더해지면 사회복귀과의 존재가치는 더욱 확연해진다.

게다가 구외작업장·외부통근작업 운영, 보호복지공단 실무자 초빙 등은 출소 이후 보호관찰과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복귀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귀과와 보호복지공단의 협력을 통해 손세차장을 창업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한 두 명의 수용자, 가족사랑캠프를 통해 단절된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20대 수용자의 사례는 이러한 노력이 현실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협력의 가치, 서로를 복돋는 따뜻한 힘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일찍부터 교정시설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함께하는 사회복귀’ 모델을 실천해 왔다. 전남농협본부와 연계한 ‘농촌일손돕기 보라미 봉사단’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수용자가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 집중호우 피해 당시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운영된 ‘수해복구지원 보라미 봉사단’ 역시 지역 회복에 힘을 보탠 대표적인 사례다. 목포교도소 사회복귀과 협력의 근간에는 결국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다. 서신업무, 종교업무, 보라미봉사단 운영처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분담하며 쌓아 온 직원 간의 신뢰와 열린 소통은 이미 부서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 대신, 누구든 먼저 나서 해결책을 찾는 공동 대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도 이러한 팀워크 덕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팀워크는 누군가가 다시 사회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사회복귀과만의 힘으로 오늘도 따뜻하게 발현되고 있다.

#### mini interview

#### 송봉석 사회복귀과장



사회복귀과의 업무는 보통 서신 정리나 종교 프로그램 지원, 보라미봉사단 운영 등 역할을 나누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업무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누군가 바쁘면 옆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움직여 흐름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죠.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니 부서 전체가 훨씬 유연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응이 빠르고요. 서로 신뢰하고 움직일 때, 수용자 지원이든 지역사회 협력이든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하)

- 일본 교정의료 중점시설 연구보고서 -



**정재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위

## 목차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 III. 일본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1. 동일본성인교정(東日本成人矯正)의료센터의 개요
  2. 시설 운영의 특징
  3.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개요
  4. 시설 운영의 특징
- IV.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설립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 III. 일본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 2. 시설 운영의 특징

#### 가. 시설 내 출입

시설 내는 역시나 교정시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열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통로의 열쇠는 의료직원이 휴대하고 있지만, 수형자의 병실의 문은 형무관만이 다룰 수 있다. 참관 당일 느낌 점은 형무관들의 시설 내 계호와 경례 방식은 한국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복의 계급장이 없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었다.

재활 및 케어, 진찰 시에는 의료직원은 형무관을 동반으로 병실을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직원은 출근 후 기본적으로는 시설의 밖을 나갈 수가 없으며, 점심시간에 편의점 등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매점 또는 직원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등을 지참하는 사람이 많다.

#### 나. 병동

이곳의 규모는 약 5.5만 평 미터의 면적이고, 청사동, 에너지동, 관리·의무병동, 진료동, 체육관 등이 정비되어 있다. 일반병동은 총 7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H의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다. H의 모양으로 각 끝 구역을 A, B, C, D으로 나누어서 운영 중이었다. 정신, 신체, 감염 병동으로 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교도소와 같이 남녀를 구분해서 수용되어 있다.

수술실과 ICU에 준하는 회복시설(개인실 2개, 4명의 단체실 1개)도 마련되어 있다. 일반병동처럼 비교적 정숙한 편이며,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교정시설 처럼 여러 명의 건강한 수형자가 배식이나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자영작업자(국내에는 운영지원부)가 이곳에서도 있었다. 참관일 기준으로 남자 23명, 여자 5명으로 총 28명이 운영지원으로 수용 중이었다.

지하 1층의 세탁실에서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이곳은 민간 협력 업체에 위탁을 한 곳으로 세탁 및 린넨 등 관리업무를 맡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용자의 세탁물을 물에 녹는 수용성 세탁 봉투를 사용하여 봉인 후 세탁 공장으로 보내 세탁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봉인 없이 세탁물 처리가 가능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점이 매우 위생적이었다. 이곳 역시 운영지원부 수용자가 일을 하는 곳으로 소년원의 인력이 와서 업무를 한다는 담당 직원의 설명이 있었다.



독거실 병동

이 병동은 전부 단독실(한국의 경우는 독거실)이다. 각각의 거실의 열쇠는 형무관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다. 식사는 국내 시설과 비슷하게 문 옆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건넨다. 또한, 사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매일 신문을 넣어준다.



단독실(독거실)

단체실(혼거실)

거실 문의 흥미로운 점은 양방향으로 향해 있는 정 가운데 세로형 아크릴 재질의 창문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구조지만 거실 내에서 보았을 때는 특수필름 처리가 되어 있어 겹쳐 보이므로 입소자끼리 대화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각 병동에는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인들의 목욕 습관을 상정한 구조로 보인다. 독거실과 혼거실에도 있으며, 독거실은 모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히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한 장벽 제거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최신식 종합병원이자 형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기 및 난방 등은 지역 난방식으로 거실 내부까지 온도를 조절해주고 있는 장치였고, 거실 내의 감시카메라는 천장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거실에 카메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 직원에게 전달받았다.

혼거실에는 다수의 사람이 입욕할 수 있다. 입욕 시간은 15분이며 드라이기 등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두지 않는다.

#### 다. 독거실



거실 내 화장실

세면대

독거실의 침대나 휠체어의 상시 출납이 가능하도록 일반 형무소보다 약간 넓은 구조도 되어 있다. 병실에는 창문이 있고, 채광도 좋은 편이다.

위 그림과 같이 화장실과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다. 충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느낌이다. 또한, 각 거실에는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캐리어 케이스도 상비되어 있었다. 거실의 정기적 배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 라. 재활실

일본의 의료전문시설에서 흥미로운 곳으로 사료되는 것이 이 재활실이다.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의 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적인 치료 후에 동반되는 재활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이 시설에는 전문 재활치료사를 고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정신질환의 재활이 이루어지는 치료 공간도 있으며 여성 치료실은 아이컨택을 피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형태의 책상을 배치하고 있다. 훈련작품이 다수 전시되어, 도구도 깔끔하게 수납되어 있다. 한국 교정시설의 상담실이나 사회복귀과 교육실 등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수용자 심성순화 작품



집단치료실 전경

이곳에서 1시간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앞서 상술한 교육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집단치료실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치료대상자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책상이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 주3회(월, 수, 목요일)은 고령자, 주2회(화, 금요일)은 조현병 등을 겪는 청년층들의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동치료실 전경

위의 사진 자료의 운동치료실은 일반적인 병원의 물리치료실과 같은 모습의 기기와 비품이 정비되어 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재활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운동치료 실에는 형무관 2명이 배치되어 있어, 재활 중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보안상 무거운 역기 같은 도구는 엄중한 관리하에 사용되고 있었다.

### 마. 수용복 구분과 식사

신체 질환자는 일본의 일반병원의 푸른색 환자복을 착용하고 치료를 받는다. 정신 질환자는 치료의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와 정신 치료를 할 때 황색의 환자복,

여성은 분홍색의 환자복을 갈아입는다.

식사는 하루에 권장 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당 영양사가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일본의 교정시설은 보리밥이 기본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죽, 미음, 빵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반찬도 잘게 썰어나오거나 염도와 단백질 등을 제한하는 등 주치의의 식사 지도를 토대로 치료식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참관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러한 급식 시스템 일부를 PFI<sup>1)</sup>라는 방식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식사를 만든 후 급속 냉각을 하고 필요할 때 재가열하여 급식(Chilled공법)을 하는 첨단의 배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위탁 방식은 이곳 뿐만이 아닌 의료형무소와 다른 일선기관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식중독 예방 등과 관련된 위생 문제, 영양학적인 부분, 경비의 절감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교정시설에서도 문제가 되는 수형자 운 영지원부 취사장에서의 인력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의료형무소의 경비 절감과 감염병 예방 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 바. 진료 및 수술

일반적인 한국의 교정시설 내의 진료 과정을 보면 일본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동 센터나 일본 내의 형무소 등의 진료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자격을 지닌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형무관이 진료를 받기 위한 수행자를 동행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전술하였던 동 센터의 중간호사제도 양성소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배속되어 의료 업무를 담당한다.

실제 의무관의 애기에 따르면 공권력을 지닌 의료인 같은 모습으로 처음에는 형무관의 제복 위에 흰옷의 의료인 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으로 의료형무소나 일선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 의사의 진찰 시도 간호사의 처치 시에도 형무관이 입회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인력이 수형자와 일대일로 대면하는 일은 결코 없다. 진료 종료 후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오는 수형자가 있지만 이런 경우 의사는 이것으로 진료는 종료한다고 선언하면 형무관이 수형자를 세워 퇴실시킨다.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매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1)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칭함.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고, 민간 기업이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며, 국가시설인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에서는 예산을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만약 수행자가 반항하여 급박한 상황이 된다면 현장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형무관이 그것을 누른다. 그러면 형무관 전원이 일제히 각 부서에서 뛰어와 현장에 모인다. 그리하여 불온한 태도의 수행자를 제압한다.

우리도 현장 근무 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훈련을 자주 시행하고 실제 상황도 많이 겪는 것과 같이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기동순찰팀(CRPT) 제도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 센터에서 대응 가능한 환자의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 형사시설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수술을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각 과로는 일반·소화기외과(식도암·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담석증·헤르페스·치질 등), 내분비외과(갑상선질환, 유방암 등), 흉부외과(폐암·기흉·종격종양 등), 비뇨기과(신장암, 방광암, TUR 등), 혈관외과(스텐트 확장술),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등 수술과 내시경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술 전 관리, 수술 중 관리(전신마취, 경막외마취, 요추마취 등), 집중치료실에서의 포함한 수술 후 관리가 관계 각 과의 전문직원에 의한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암 등의 악성질환에 대해서 수술 전후 화학 치료법을 포함한 집중적 치료를 실시한다.

아래는 당 센터의 최근 의료 공조 건수와 수술의 건수 통계이다.

〈표 8〉 의료 공조 및 수술 건수 연간 통계

(단위: 건)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의료 공조 | 360  | 329  | 297  | 316  | 405  |
| 수술    | 108  | 100  | 110  | 102  | 92   |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시설의 안내(2024) 발췌

참관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동일본교정의료센터 등의 교정 시설의 의무관 확보에 대한 인터뷰와 논문을 통해 그간 일본에서도 많은 고찰과 연구의 산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분한 의무관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일본교정의료센터가 증축된 이후 더 많은 의무관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 사안을 보더라도 우리도 시설의 설립 진행의 경우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교정의무관이란 말 그대로 시설 내 상주 근무가 필요하다. 이에 한가지 일본의 정책 방향 중 하나의 제언을 들자면 첫째, 의사의 당직 근무의 무리가 있는 경우 인력 확보의 대책으로 의료 기술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 일반병원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의사로서 유기적 협동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점업 제도 등도 참고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일본은 2023년 6월 17일에 矯正医官特例法(교정의무관특례법)을 제정하고 약 9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가 이 방식의 법률의 내용을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공고하여 의무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 아래의 이미지는 현재 일본의 교정시설 교정의무관의 채용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번역 후 첨부하였다.

둘째로 근무표에서 보이듯이 개별적으로도 현재 주 5일 내의 본인들의 시행하는 연구의 계속성과 개별의 점업 허가 등 탄력적인 시설 내외 근무를 함으로써 의사의 기술 유지 및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의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비당직 의사와 촉탁의 등을 확보한다는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교정시설이 의사협의회와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의회를 설치하여, 시설 내 의료 현상, 의사의 충족 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의사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정의무관의 홍보 책자 등 근무표 이미지

셋째, 현재 일본 교정국의 인상 깊은 확보책으로는 전술한 교정의무관 특례법의 제정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핵심 사항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 장래 교정시설에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무이자로서 학자금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학자금 대출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 3학년생부터 졸업까지이며, 그 대출금액은 월간 150,000엔(약 150만원)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학 졸업 후 교정의무관이 되어 대출을 받은 기간의 1.5배의 기간(단,

최소 3년간), 근무를 계속한 경우,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sup>2)</sup>

2) 改訂版 矯正医療 第2 矯正医官の確保策 1項 矯正医官修学資金の貸与



이와 같이 특례법 내용에는 의무관의 겸업·유연근무제 등이 있으며, 현실적인 제언에 상세한 내용을 후술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집 공고를 각 시설에서 일본의 의과대학, 지역의료기관, 지역 의사협회 등에 대하여 의사 파견 의뢰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효율을 위해 의료 스텝의 취직 또는 전직의 지원을 실시하여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의무관 결원이 있는 곳의 정보 등을 게시하여, 폭넓은 의사의 채용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 확보를 시작으로 교정 의료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각 일본 교정청에 교정 의료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교정 의료에 관한 조언, 지도 체제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교정 의료 어드바이저는 각자의 교정시설 소재 지역의 의료에 정통한 사람과 대학 병원 의료국 등에 있어 의사 파견을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 등을 일컫는 말로서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시설로 의사의 파견과 지역의료기관과 교정시설의 연계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3)</sup>

넷째, 민간협력체제(PFI)의 도입으로 급식, 의료기기의 조달·보수, 전자기록, 청소, 환경정리, 린넨업무, 의약품·자재비의 조달지원, 재고관리, 인공투석실업무 등을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동 센터의 예산은 국비로 운영되므로, 민간의 위탁으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인공투석실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주 3회 4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일 기준으로 35명이 투석 중이었다.

필자가 근무 중인 화성직훈교에서는 투석 환자가 생겨 외부병원에 의지하여 6시간 이상씩 근무자들의 계호가 필요한 점을 비교하게 되었다. 이처럼 참관일 기준으로 동 센터의 민간 위탁 사업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다섯째, 동 시설의 지역민의 반대 및 갈등에 대한 문제로서 참관일에 담당 직원에게 물었을 때 이곳도 당연히 지역민의 반대가 많았지만, 시설 공사를 들어서면서 아키히마의 도로 개간과 시냇가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아키히마에서 교정전시회를 2019년 2월에 첫 실시하였고, 2, 3회차도 최근까지 시행하였다.

지역주민이 협업하는 스테이지 이벤트 외에 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고, 해당 시의 재해 방지 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 10월 12일 태풍 19호로 인하여 근처 타마시 하천의 범람 때 아키히마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난소를 개설하여 피난민을 구조하는 등의

3) 改訂版 矯正医療 第2 矯正医官の確保策 3項 矯正医アドバイザーの配置

지역 협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센터의 교정시설 후원회의 연계 및 교정시설 소재 자치회회의 설립 총회를 의거하여 동 회의 부사장에 구 아키히마시 시장이 선임하는 등의 지역 공생 및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동 센터의 갈등 해결 방안은 우리 한국 교정에서의 큰 과제로 생각하는 문제이며, 지역 이기주의를 지역과의 공생으로 연계하여 선진교정시설을 설립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만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 3.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개요

가. 오사카부 사카이시 사카이구에 위치한 이 의료형무소는 전문적인 의료처우를 요하는 수용자를 수용하는 서일본의 형무소 중 의료센터 역할을 한다. 1974년 3월 오사카형무소 지소로서 개청하였고, 1983년 10월 인공투석실도 신설하고, 정신과 환자의 집단 치료를 개시하였다. 이후 2001년 본소로 승격 후 2006년 2월 CT기의 설치가 되었고, 2007년 여자 환자를 수용하였다.

2014년 PACS(화성보존통신시스템)을 도입하고, 2019년 2월 임상검사시스템을 갱신하는 등 증설 작업을 이어왔다. 이곳이 설립된 이후 정신질환과 결핵 환자의 나이가 평균 40세였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악성종양과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등 시설을 확장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어 2021년 2월 제1기 공사를 개시하였고, 총 3기에 걸쳐 완공하였다.

제1기 공사에 바로 신 병동이 완성되어 2022년 12월부터 병동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에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부차적인 설비를 증설하고, 중환자실 등 병상 수를 추가로 210개로 늘렸다. 제2기 공사에서는 2024년 9월에 준공하여 의료관리동, 청사동, 차고동이 건설을 마칠 예정이고, 2024년 제3기 공사에서는 구건물들을 철거 예정이다.

2024년 5월 7일부터 오사카 의료형무소에서 현재 정식 명칭으로 개칭되었다.<sup>4)</sup> 동 일본의료센터가 동일본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현 센터가 서일본을 대표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이 센터 역시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고, 회복 상황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하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 체력과 질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4) [https://www.moj.go.jp/kyousei1/kyousei05\\_00112.html](https://www.moj.go.jp/kyousei1/kyousei05_00112.html)



## 나. 의료 서비스 체제

동일본센터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급 시설로서 전반적으로 회복기, 말기까지 폭넓게 의료를 제공한다. 의료직 정원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90명으로 의사 19명, 간호사 60명, 진료방사선기사·임상심리사가 11명이다.

진료 병동은 내과, 외과, 정신과, 부인과, 비뇨기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신장내과, 피부과, 순환기내과, 혈액내과, 치과 등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X-ray, CT, 초음파진료, 인공투석장치 등 의료기기 등이 완비되어있고, 진단과 수술, 거기에 화학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MRI 등 무거운 의료기기가 건물의 노후화로 도입이 어려워 해당 검사와 응급수술은 외부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제 서일본센터로 개칭하는 동시에 시설 확충하여 시설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밑에 그림은 현재 구비되어 있는 MRI 및 CT스캐너의 장비의 사진이다.

당 센터의 수용정원은 256명이고, 수용 현원은 78명이다. 그리고 환자의 60퍼센트는 암 환자라고 한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서일본의료센터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여 명으로, 이들의 처우는 다른 질환 수용자와 처우가 큰 차이가 없으며, 상태에 따라 작업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다.

## 4. 시설 운영의 특징

### 가. 시설 내 출입

의료형무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 시정 장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의료시설인 동시에 교정시설이므로 수용과 규율 질서를 유지하는 것 역시 기본이다. 형무관과 의료직원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 면회는 1회 40분 정도이며, 월 2~3회 실시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는 방문자가 병동 거실로 와야지만 면회가 가능하다.

### 나. 병동

일반적으로 병동은 정신, 신체, 감염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교도소와 같이 남녀를 구분해서 수용되어 있다. 수술실과 ICU에 준하는 회복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집중치료실도 추가로 늘었으며,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건강한 수용자가 운영지원의 목적으로 동 층에 상주하고 있다.

새로운 병동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상에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다. 총 6층 건물로서 1층에 18개의 병상을 보유한 인공투석실, 재활실, 취사장 및 운영부 수형자의 거실, 2층은 내과 환자의 거실 및 동 층의 운영부 거실, 3층은 외과 환자와 운영부 거실, 4층은 정신과 환자와 말기환자 및 운영부 거실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층 역시 여자 위주로 수용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 환자 거실과 운영부 거실이다.

6층에는 감염병 환자의 음압실과 암 환자의 저항력의 저하된 환자의 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클린룸(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저항력이 낮아진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거실), 수술 후 회복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한 목적의 거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층에 진찰실과 간호사실이 정비되어 있다.

새로운 의료관리동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관리동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MRI, CT스캐너, X-ray실 등을 구비되어 있고, 2층은 일반진료실, 이비인후과, 치과, 생리검사실, 내시경 및 초음파검사실 등을 구비, 3층은 임상검사실, 약국, 수술실 등을 두고 있다.

## 다. 서일본교정성인의료센터의 의료체제

이곳 서일본의료센터는 1과에서 4과까지 의료체제를 구분하고 있다. 제 1과의 주요 질환은 조현병, 우울증, 약물중독, 섭식장애이다. 제 2과는 내과계 질환에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질환은 만성 C형 간염, 심질환, 악성종양이다. 제 3과는외과계 질환의 영역에서 소화기 및 부인과 질환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제 4과는 인공투석실을 중심으로 신장내과, 비뇨기과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

과거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의 증상별 입소자의 추이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악성종양이며 소화기계, 순환기계, 감염증, 정신질환이다. 연간 수술은 50건 정도를 실시하고 그 건수는 외과, 부인과, 비뇨기과 등 폭넓다. 수술 중 악성종양 절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재활치료 역시 실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독서지도, TV시청,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으로써 약물의존 지도, 피해자 감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태에 따라 원예치료 외 플라스틱 조립 등 가벼운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의 실정과 비슷하게 교정위원과 교사 등을 초빙해 고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은 아로마 셀프 마사지라는 연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용자 자신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본인의 손가락 등을 마사지하는 것을 말하며 스트레스 완화 및 감정 조절 방법을 습득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아로마



테라피 강사를 초빙하여 처우의 내실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 라. 수용자의 식사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환자식으로 구분하여, 일반식 및 치료식(죽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식은 주치의의 식사 지시에 따라 영양사 지도 하에 식단을 변경하여 적합한 식사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곳 역시 동일본의료센터와 같이 칠드공법을 이용한 외부의 위탁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 마. 수술

역시 폭넓고 전반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당 센터의 의사의 말로는 외과수술은 가이드 라인에 따른 형태로 실시하기 때문에 외부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외부보다 취급할 수 있는 약의 선택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실시한다. 최근 복강경이 도입된 상태로서 수술의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정 의료는 사회의 의료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동 센터 의무관의 언급이 있었다. 동 센터에서는 일반·소화기외과, 내분비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혈관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구강외과 등 앞서 전술한 복강경수술과 내시경치료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술 전 관리, 수술 중 관리, 집중치료실에서의 포함한 수술 후 관리가 관계 각 과의 의료 인원에 의한 협력 체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암 등의 악성종양 등에 대해서 수술 전후 화학치료법을 포함한 치료를 실시한다.

정리를 마치며, 서일본의료센터는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2024년 5월경 현재 명칭으로 시설명을 바꾸고 종합병원급 의료센터의 격으로 한층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이곳 역시 의무관의 부족으로 시설이 격상하면서 일본의 교정국의 의무관 채용 사이트 등으로 교정의무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교정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무관 채용 공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19개 직군 중 17개(2024년 12월 기준)를 충원했지만, 특히 외과(소화기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혈액내과, 호흡기내과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일본의료센터처럼 주 3회 투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동일본의료센터 만큼의 의무관 수를 확보하려는

동 센터의 노력을 보면 한국 내에서의 의료시설이 설립된다면 세심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IV.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설립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 1. 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 가. 의료전문 교정시설의 신설 필요

앞서 서술하고 연구자료를 검토한 바 현재 외부의료시설의 부재로 인한 예산은 더욱 늘어날 추세로 앞으로도 수용자의 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들의 고령화로 신중한 의료처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예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수용자 외래 통원 및 입원으로 모면하는 것은 조삼모사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의료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수용자 도주 방지와 교정본부를 통틀어 모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연수국과 같이 관구별(우리 관점에서는 교정청 별)로 의료전문 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 2.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만약 수형자의 의료보험 예탁금 등으로 축적된 금액을 환산하였을 때, 교정직 의무관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도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연수국도 마찬가지로 인력의 채용 문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교정직 의무관이 무엇을 하는 일이며, 이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적인 동시에 정복직원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하며 자격까지 주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면, 만성적인 의료인력의 부재를 조금이라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일본의 교정의무관 특례법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우리도 장래에 필요하게 될 의무관 제도를 살펴보겠다.

만약 교정전문병원이 개설되고 우리나라의 의무관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무관 특례법을 상세하고 학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특례법 내용의 제2장의 목적 부분에서 종래의 일본 교정의무관에 관한 제도에는 제1항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제1항의 내용은 교정시설에 있어서 교정시설 내 진료는 충분한 의료 설비와 기기가 정비되어야 있어야 하나, 보통의 교정시설은 의료직원도 최소한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과 진료의 대상이 수용자로 국한 되어 있기때문에 다루는 병례에 한계가 있고, 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항의 내용으로서 1항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교정의무관을 대상으로는 외부 진료기관에서 진료와 수술을 견학하는 등의 진료 경력을 접할 기회와 병례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의 조사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정시설 외에 근무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양립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근무 시간을 쪼개도 7시간 45분 이내로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의 부족으로 초과 업무를 하고, 거기에 근무 일수가 한계에 달하여 연차 등 휴가를 본래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제3항의 내용은 교정의무관이 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임상 의료의 입회 등만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등의 의료적 겸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규 근무 시간인 평일 낮 시간 동안에 겸업을 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4항의 내용으로 교정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국민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 법률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교정의무관의 능력 향상기회를 얻고 우수한 인재를 구함과 동시에 이직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의무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특례법의 제5장의 겸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에 안팎을 불문하고 병원과 진료소 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겸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료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최신 동향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공무에 환원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교정의무관이 익힌 의술을 실시하는 것과 사회 일반의 임상 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의료수준이 외부 의료수준 정도로 유지하도록 이바지함과 동시에 의료 진보에 뒤처지는 우려와 실력의 유지와 향상의 기회를 얻길 바라는 의무관의 뜻에도 합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이직 방지와 결원의 보충에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또한, 교정시설 소재지는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의사 부족 지역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겸업의 특례에 의해 의무관이 상당수가 해당 소재지의 외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지역 의료에 공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지역의 외부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의존하는 관계가 개선됨으로서 부차적 효과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의 의료 취약 지역의 지역의료기관과 교정시설에서는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특례법 실행 후, 지역의료기관과 의무관을 양립하는 것도 가능해진 덕분에 장년의 의사가 상근의사가 부재했던 교정시설에 채용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본 특례법은 겸업을 통해 교정의무관으로서 그 실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 의료의 일반사회에 비추어 적절한 의료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겸업을 통하여 적정액의 보수를 받음으로써 공무 외의 수입을 얻는 것이 의무관의 급여와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수입 간의 격차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겸업·겸직은 일본의 법률에 합치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부터 본질적인 부분은 교정의무관의 개인적인 의료 기술보다는 시설 내의 공무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교정시설에 있어 수용자에 대한 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형태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특례법 겸업의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104조에 정해진 겸업·겸직은 내각총리대신 및 관할청장의 결재 하에 시행한다. 이 절차의 취지는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공무의 신용의 확보가 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허가의 기준으로서의 직원의 겸업의 허가에 관하여 일본 내각장관령 제1조에 의해 그 직원의 관직과 겸업처과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직무의 속행에 지장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겸업의 허가 권한에 대해서는 직원 겸업의 허가에 관련된 일본 내각장관령 규정에 의해, 의료직 봉사표 3급, 4급 또는 5급인 직원 이외의 교정의무관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허가 권한이 관할청장인 법무대신에 위임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내각총리대신이 허가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위임받은 관할청장의 있어도 법의 취지를 받아들인 내각장관령으로 정해지는 기준을 기초로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의사가 급하게 의원면직을 하고 겸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고 다시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언을 때까지의 상당 시간이 요구되므로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 이때 수용자의 구급의 경우에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한편, 교정의무관이 신속히 협력을 할 수 없는 사태도 일어나, 지역 의료로부터 의무관이 고립되어 버리는 일도 생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술한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104조의 취지부터 확립된 운용법이고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장관령 이하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교정의무관이 진료를 실시하는 겸업에 대해서 그 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의무관의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공무의 신용을 해하는 것이 아닌 내각총리대신의 허가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반드시 요하지 않은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급하게 사직하는 경우나 애초에 의사 부족인 경우에는 진료 등의 겸업에 대한 공익적인 니즈가 높고 게다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셈이다.

절차에 시간을 요하게 되어 의무관의 대응이 곤란하게 되면 해당 의무관뿐만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체의 믿음을 실추시켜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의무관이 진료의 겸업에 대한 승인권자에 관련된 특례를 정하여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법무대신의 승인만으로 간이절차로서 겸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또한, 이 특례법은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10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어느 쪽의 규정 적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때문에 법무대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겸업의 총량의 규제에 관한 부분이다. 겸업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관의 본무는 교정시설 내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겸업처에서의 일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본 업무인지 알 수 없는 형태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법 훈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규 근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는 외부 진료에 시간은 주당 19시간(일본의 교정의무관의 일주일 당 정규시간이 38시간 45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차이를 19시간에서 제외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주중 겸업에 관한 총량 규제의 취지는 본 업무에 일하는 시간의 확보이므로 육아시간이나 후술할 유연근무제의 적용 등으로 정규 근무 시간이 일주일 당 38시간 45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미달된 만큼의 시간은 겸업에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등으로 어떤 주에 할당된 정규 근무시간이 19시간 5분인 경우는 해당 주에는 겸업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총량의 규제는 어디까지나 정규 근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수의 제한이지 겸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아니므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겸업은 본건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음은 특례법상의 유연근무제를 서술한다. 그 필요성으로는 일본 국가공무원상의 근무 형태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의료직으로 적용을 받는 교정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교정의무관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라는 시간대에 근무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한편, 의사로서의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 밖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되고 있던 외부 연수 등은 매주 월요일 오전, 화요일 오후에 할당하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진찰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료기관 등에서의 외부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 아침 또는 야간의 컨퍼런스의 참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자료 수집, 환자들의 수술의 견학 등 파견처에서 있는 외부의료기관 등의 사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며, 또한 1일 근무 시간의 합계가 7시간 45분으로 채워지지 않거나 반대로 7시간 45분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서 1일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기관에서 활동시간과 정규 근무 시간의 차이를 초과근무라든가 휴가를 내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같았다. 이 탓에 늘 초과근무라는 과중한 업무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연가에 대해 본래 용무와는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교정시설의 복무 담당에게 복잡한 업무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인재 확보의 관점에서도 효과적인 부분(이직을 막고 동시에 새롭게 교정의무관에 흥미를 갖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짐) 등의 부차적인 장점으로 생각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 코어타임의 설정이라는 것은 유연근무제의 골자로 보인다. 이 근무제는 직원의 주체적 판단에 맡겨 업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근무 시간을 배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그 주체적 판단이 위임된 업무라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조직으로 수행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각 부처의 장이 반드시 근무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시간대를 코어타임이라 칭하고 있다.

교정의무관 특례의 유연근무제의 핵심 시간(코어타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되는 2시간(휴게시간 제외)이다. 이는 일본의 형무관 등 다른 교정직원의 정규 근무 시간이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인 점, 수용자의 진찰을 위해서는 정복직원이 입회해야 하며,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진찰을 하게 되므로 시설의 장에게 이 시간대에 최소 2시간의 진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일 2시간의 진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사가 복수 배치가 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경우 의료직 간의 연락 조절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교정의무관이 근무하는 시간대를 확보하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기와 관계없이 휴일 등의 근무 시간 할당에 대해서는 7시간 45분을 넘는 근무를 인정받으면 쓸데없이 장시간 근무 시간을 설정하여 다른 근무일이 감축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반대로 7시간 45분 미만으로 해당 의무관을 다른 직원보다 과도하게 근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의 유연근무제의 업무 시작 시간은 오전 7시 이후로,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 이전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의무관으로부터 결재를 올리고 결재대로 근무 시간을 배정한 경우에 업무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해당 상신대로 근무를 배정하며 해당 상신의 근무 시간을 배정하면 업무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복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신과 다른 근무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근무 시간의 신청과 결재는 15분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일의 근무 시간을 8시간 10분으로 신청하는 결재를 올리면 반려한다는 식이다. 또한, 우선 근무 시간이 결재가 완료가 된 후라도 외부 기관 등의 일정 변경이나 돌발적인 업무 발생 시에 의해 이미 결재가 난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는 경우로서 업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초과근무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연근무의 취지로 비추어 일정한 기준하에 근무 시간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 3.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 가. 정신질환 시설에 대한 제언

의료전문시설에 관련하여 자료를 모으는 중 일본의 일선 기관 중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두 시설(키타큐슈, 오카자키 의료형무소)의 예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진주교도소를 생각해 보면 현직 직원들의 업무 요건 개선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국과 같이 정신 관련 의료시설이 미비한 국내에 정신 관련 의료시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환자와 정신질환 관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기도 하여 이 시설도 더불어 필요한 상황이다.

정신장애 수행자를 다루는 일은 의료법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일이라 업무의

강도는 어느 현장과는 비교도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의료 특채 전문직을 고용하거나 빠른 근무 순환 등(예를 들어 주기적인 고충전보)을 대체해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최전선 같은 시설에서 의료 처우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의료전문시설 등 반대 여론에 대한 제언

앞서 동일본의료센터 및 서일본의료센터 등 거대한 종합병원 시설을 설립하는 중에 지역 시민의 반대 여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인 제언을 정리하자면 국가와 지역민 간의 공생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시설을 설립하면서 지역민의 시설도 같이 확장을 하거나 국립 시설 용으로 만든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교정기관에서도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협력책 등을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는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교정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교정시설의 이미지를 어두운 곳만이 아닌 시민들에게 밝고 친숙한 면으로 가까워지게 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청사에서의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일선 기관의 전시회로 나누어 독립적인 전시회를 열게 된다면 지역민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든다.

#### 다. PFI 등 민간기업의 위탁 활용의 제언

국내에 교정전문시설 또는 종합병원급의 교정병원이 설립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수국의 PFI(민간 외부 위탁)으로 그 비용을 삭감 또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이에 본래의 취지인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외부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의료를 억제하는데 인센티브를 추가로 정하는 계약으로 번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의료 위탁(동일본센터처럼 주로 인공투석실 운영과 의약품·자재비의 조달, 재고관리 교체, 급양 및 린넨 관리 등)은 주로 민간병원에 의해 위탁하고 있지만 애초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병원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부분 개설 주체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의 폐해가 외부 위탁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한다.

일본은 의사 부족 해소의 목적으로 외부 위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실제로



일본의 교정시설 위탁 의료의 우수성과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처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시설에서만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보면 이 또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사가 교정시설의 직원이라는 상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고액의 위탁비 책정이 행정적, 비용적인 부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위탁비를 한층 증액할 수 있다면 그만큼 위탁처의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위탁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탁을 활용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외부 위탁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위탁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교정의무관의 급여 수준이 외부의료기관의 수준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은 의무관의 특례법으로 이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 위탁을 했을 경우 의료비의 고액화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일 수 있다. 위탁의 고액화 요인을 상세히 밝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투명하게 드러내야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탁 시에 의료비가 상승하면 그 비용에 응당한 수탁자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가상의 교정의료병원이 설립된 후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본과 전제조건이 달라 PFI방식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고찰했을 때, 지자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교정의료시설의 운영 및 설비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면 교정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東日本成人矯正医療センター 施設のしおり(2024. 11. 8. 法務省矯正局矯正医療管理官編)  
西岡 慎介, 詳解 矯正医官特別法(2018. 6. 11. 公益財団法人矯正協会)  
研修教材 改訂版 矯正医療(2020. 6. 1. 公益財団法人矯正協会)  
赤池 一将, 刑事施設の医療をいかに改革するか(2020. 2. 25. 日本評論社)  
波多野 和夫, 刑務所の医療と福祉(2015. 3. 20. ナカニシヤ出版)  
瀧井 正人, 摂食障害という生き方 -医療刑務所から見えてくるもの-(2016. 12. 10. 中外医学士)  
刑政 9月号(2024. 9. 10. 公益財団法人矯正協会)

■ 학술논문

박영규, 교정연구 제48호: 의료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년  
김태명 외 1명,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제29집: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9년  
이석배, 의료정책포럼 : 수용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의료적 현황과 문제점, 2015년  
권수진 외 3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년  
허경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년  
이교우, 교정시설의 인력운용 및 보안근무체계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단기결과보고서, 2019년  
中根 憲一, レファレンス 矯正医療の現状と課題(2007)



#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 타 독립외청과 비교 중심으로 -



**이재민**  
대구교도소 보안과 교정관

## 목차

- I. 서론
- II. 한국 교정행정의 구조와 한계
- III.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 IV. 교정청 독립의 기대 효과
- V. 교정청 독립 추진 현황과 실행 방안
- VI. 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 예방과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 행정은 단순한 형 집행을 넘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수용자의 처우와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up>1)</sup>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 행정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적 독립성이 부족하고 정책 집행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재판)은 독립적인 조직인 반면 교정본부만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본부급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어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조직적 한계로 인해 교정 행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예산 및 인력 운영에서도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에서 검찰과 함께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므로 독립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고 교정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 정책 또한 법무부 내 다른 직렬과의 경쟁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교정 행정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교정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며 수용자의 처우와 수형자의 교정 교화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문학진 의원을 시작으로 2013년, 2017년, 2020년에도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교정 행정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정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정 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독립성 부족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교정 행정이 법무부 산하 본부급 조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분석하고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기존의 독립 외청과 비교하여 교정청 독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외 교정기관의 사례를 통해 교정청 독립의 기대 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여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정 행정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한국 교정행정의 구조와 한계

### 1. 교정본부장의 위상 문제

현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직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교정 공무원이 2023년 말 기준 정원은 16,372명으로 법무부 정원 23,719의 69%, 예산은 1조 7,690억 원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 4조 2,970억 원의 41%를 차지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조직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장(차관급)이나 검찰총장(장관급)과 같은 유사 법집행기관의 수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이 교정 행정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 독립 외청의 경우 청장이 차관급으로 임명되어 행정적 권한과 정책 결정의 독립성을 보다 보장받고 있지만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어 주요 정책 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교정 행정이 단순한 형 집행 업무가 아닌 수용자 처우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또한 교정 공무원이 경찰, 소방, 해양경찰과 유사한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며 제복을 착용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교정본부장은 그 위상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정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직무 효율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하고 청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것은 교정 행정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정 행정의 정책 수립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과밀 수용, 교정사고 증가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은 <표 1>과 같이 정원의 12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공간 부족<sup>2)</sup>을 초래하고 위생과 건강 문제, 폭력 사건 증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이에 대한 결과 <표 2>와

2)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재2016.12.29. 2013헌마142)

같이 교정시설 내 폭력, 도주, 자해, 등 교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원 폭행의 경우 2024년에는 152건으로 2019년 66건에 비해 약 2.5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교정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표 3>과 같이 교정 공무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한 수용 현황은 교정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한다.

과밀 수용은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사 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결과 수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는 교정본부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외에도 수용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교정 공무원의 정원도 <표 4> 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북 부구치소, 화성여자교도소, 남원교도소, 태백교도소, 광주구치소, 대전구치소 등을 신축 계획 중에 있는 등 교정 행정 분야는 앞으로도 더 커질 예정이다.

교정청으로 독립되는 경우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수용자 분류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각 시설의 운영 자율성 확보가 쉬워져 효율적인 수용자 관리와 수용 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수형자에 대한 교화 및 재활프로그램이 개별적 처우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최근 5년간 연간 일 평균수용 인원(2025교정통계연보) (단위: 명)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원      | 48,600 | 48,980 | 48,990 | 49,922 | 50,250 |
| 하루평균 인원 | 53,873 | 52,368 | 51,118 | 58,577 | 61,366 |
| 수용률     | 110.8% | 106.9% | 104.3% | 113.3% | 122.1% |

<표 2> 최근 5년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2025교정통계연보) (단위: 건)

|       | 계     | 자살 | 병사 | 화재 | 폭행 상해 | 직원 폭행 | 기타  |
|-------|-------|----|----|----|-------|-------|-----|
| 2019년 | 1,000 | 8  | 28 | 1  | 505   | 66    | 392 |
| 2020년 | 1,241 | 11 | 32 | 5  | 577   | 97    | 519 |
| 2021년 | 1,278 | 10 | 32 | 1  | 598   | 111   | 526 |
| 2022년 | 1,527 | 8  | 45 | 4  | 788   | 109   | 573 |
| 2023년 | 1,795 | 9  | 49 | 1  | 895   | 190   | 651 |
| 2024년 | 1,873 | 10 | 53 | 5  | 881   | 152   | 772 |



〈표 3〉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2025교정통계연보)  
(단위: 명)

|       | 2019년 | 2020년 <sup>3)</sup>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이용 인원 | 3,080 | 589                 | 4,295 | 4,418 | 7,050 | 8,398 |

〈표 4〉 전국 교도소·구치소 정원(법무부 교정본부)  
(단위: 명)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원 | 16,082 | 16,248 | 16,392 | 16,372 | 16,771 |

3.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

현재 대한민국 교정 공무원의 교대근무 패턴은 윤번 4부제이다.<sup>4)</sup> 완전 4부제 정착을 위하여 〈표 5〉와 같이 정원을 254명 받았지만, 인원 요구분에 비하면 644명이나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완전 4부제 정착이 어려워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또한 수용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최근 급격히 〈표 6〉과 같이 외부 진료<sup>5)</sup>와 외부 입원<sup>6)</sup>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표 5〉 최근 4년간 4부제 관련 정원 현황(내부 자료)  
(단위: 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요구 인원 | 262   | 220   | 226   | 190   | 898 |
| 반영 인원 | 67    | 89    | 78    | 20    | 254 |
| 부족분   | 195   | 131   | 148   | 170   | 644 |

〈표 6〉 최근 5년간 외부 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 현황(2025교정통계연보)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정원 | 15,733 | 16,082 | 16,248 | 16,392 | 16,372 | 16,716 |

3)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미운영  
4) 주간-야간-비번-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 (8일 근무 시 1일 휴식 체제), 완전 4부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많은 교정시설에서 추진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5) 외부진료를 위해서는 근무자 3명이 동행함이 원칙  
6) 입원 환자 1명당 주간 근무자 3명, 야간 근무자는 4명 또는 6명이 배치되어 하루에 7명 또는 9명이 배치됨

Ⅲ.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1. 인력

〈표 7〉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 교정 공무원의 총정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기준 16,372명에 달하고 있고 교정본부는 법무부 정원의 69%를 차지하는 규모로 법무부 조직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는 조직이다. 이와 비교하여 〈표 8〉과 같이 대한민국 외청 20개 기관 중 교정본부는 경찰청(137,716명), 소방청(66,956명), 국세청(21,351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정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정본부가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서 독립적인 인사 및 인력 운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정청으로 독립되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정 공무원의 배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립 청 체계에서는 교정 공무원의 교육 및 복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교정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표 7〉 전국 교도소·구치소 부서별 교정공무원 정원(2024교정통계연보)  
(단위: 명)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정원 | 15,632 | 15,733 | 16,082 | 16,248 | 16,392 | 16,372 |

〈표 8〉 대한민국 외청 정원(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         |             |       |
|-------|---------|-------------|-------|
| 경찰청   | 137,716 | 특허청         | 1,791 |
| 소방청   | 66,956  | 질병관리청       | 1,617 |
| 국세청   | 21,351  | 기상청         | 1,341 |
| 교정    | 16,771  | 방위사업청       | 1,134 |
| 해양경찰청 | 13,309  | 조달청         | 1,113 |
| 검찰청   | 10,683  | 국가유산청       | 1,036 |
| 관세청   | 5,327   | 우주항공청       | 293   |
| 통계청   | 2,173   | 재외동포청       | 151   |
| 병무청   | 1,94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50   |
| 농촌진흥청 | 1,899   | 새만금개발청      | 140   |
| 산림청   | 1,813   |             |       |



2. 예산

현재 대한민국 교정본부의 예산은 법무부 내에서 검찰과 함께 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체 법무부 예산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검찰과의 예산 경쟁 속에서 교정시설 개선 및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정 행정이 필수적인 국가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표 9>를 참조해 보면 대한민국 외청 20곳 중 세출예산이 6번째로 위치하고 있으며 법무부 내에 독립외청으로 있는 검찰청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시설 현대화,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 수형자의 교육·교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정본부가 외청으로 독립될 경우 기관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지고 교정시설 개선 및 교정 공무원 처우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교정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교정청 독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표 9〉 대한민국 외청 세출예산안(2024년 기준, 국회예산처 예산안 총괄 분석, 내부자료) |                         |             |         |
|------------------------------------------------------|-------------------------|-------------|---------|
| (단위: 백만 원)                                           |                         |             |         |
| 방위사업청                                                | 17,653,240              | 특허청         | 792,258 |
| 경찰청                                                  | 13,045,599              | 질병관리청       | 672,748 |
| 산림청                                                  | 3,580,363               | 관세청         | 662,375 |
| 국세청                                                  | 1,951,242               | 기상청         | 448,185 |
| 해양경찰청                                                | 1,896,654               | 통계청         | 425,267 |
| 교정                                                   | 1,895,137 <sup>7)</sup> | 병무청         | 411,873 |
| 검찰청                                                  | 1,226,000               | 소방청         | 340,389 |
| 국가유산청                                                | 1,206,70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61,099 |
| 농촌진흥청                                                | 1,097,374               | 재외동포청       | 106,660 |
| 우주항공청                                                | 961,414 <sup>8)</sup>   | 새만금개발청      | 47,702  |
| 조달청                                                  | 802,688                 |             |         |

7) 교도작업 특별회계 120,529백만 원 포함  
8)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하여 2024년 예산 부재로 2025년 예산 기준

3. 특수성

1) 사법 절차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 → 기소 → 재판 → 형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는 큰 부분으로 보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데 <표 10>과 같이 경찰청, 검찰청, 법원은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형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본부만이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어 행정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형 집행 과정이 독립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법무부의 행정적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도록 만든다. 이는 교정 정책이 검찰 중심의 법무부 기조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교정청으로 독립되는 경우 형 집행 단계에서도 보다 독립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지며 형사사법 절차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사법 절차 진행 단계 담당 기관의 독립기관 여부

| 절차   | 담당 기관        | 독립 여부       |
|------|--------------|-------------|
| 수사   | 경찰청          | O (독립청)     |
| 기소   | 검찰청          | O (독립청)     |
| 재판   | 법원           | O (독립된 사법부) |
| 형 집행 | 교정본부(법무부 산하) | X (독립청 아님)  |

2) 제복 공무원

교정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법 집행과 수용자 관리를 위해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이다.<sup>9)</sup> 교정 공무원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군인과 마찬가지로 제복을 착용하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독립성을

9) 「교정 공무원 복제규칙」



〈표 11〉 보훈부 제복공무원 행사 참여 기관의 조직 독립성 여부

| 기관    | 제복 착용 여부 | 독립 여부      |
|-------|----------|------------|
| 국방부   | O        | O (독립 부처)  |
| 경찰청   | O        | O (독립청)    |
| 소방청   | O        | O (독립청)    |
| 해양경찰청 | O        | O (독립청)    |
| 교정본부  | O        | X (법무부 산하) |

확보하지 못한 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훈부 제복공무원 행사에 참여한 제복공무원 기관들인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모두 독립 부처이거나 독립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교정본부만이 독립적 행정 조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정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타 제복 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위상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정청으로 독립될 경우 교정 공무원의 법적·행정적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교정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며 외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경찰, 소방, 해양경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예산·행정 운영이 이루어져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정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승진 시험

대한민국 공무원 직렬 중 승진 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대표적인 직렬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표 12〉와 같이 교정 공무원만이 독립된 외청이 아닌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정직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대체로 강한 조직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이 가능하다.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모두 독립청으로서 자체적인 승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반면 교정본부는 법무부의 인사 정책에 종속되어 있어 교정 공무원의 인사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과거 승진 시험을 운영하다 심사 승진으로 바뀌고 다시 시험 승진으로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 공무원은

〈표 12〉 승진 시험 운영 기관의 조직 독립성 여부

| 기관    | 시험 승진 운영 여부      | 독립 여부      |
|-------|------------------|------------|
| 경찰청   | O <sup>10)</sup> | O (독립청)    |
| 소방청   | O <sup>11)</sup> | O (독립청)    |
| 해양경찰청 | O <sup>12)</sup> | O (독립청)    |
| 교정본부  | O <sup>13)</sup> | X (법무부 산하) |

2025년부터 승진시험이 시행예정인데 교정 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 시험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은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조직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청 독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정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승진 기회가 제한되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교정청으로 독립되는 경우 자체적인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교정 공무원의 경력 개발과 직무 전문성이 강화되며 이는 교정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정청 독립은 단순히 조직 운영의 변화가 아니라 공정한 승진 체계를 구축하고 교정 공무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4) 대체복무요원 복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오로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사 처분만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sup>14)</sup>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를 하는 대체복무제가

10)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11)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1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규칙  
13) 25년부터 승진시험 시행 3937  
14) 2011헌바379 등



〈표 13〉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황 및 예상(2024년 기준)

(단위: 개, 명)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복무기관 | 3     | 13    | 20    | 25    | 30    | 33    | 34    |
| 복무인원 | 106   | 651   | 1,047 | 1,382 | 1,592 | 1,822 | 1,903 |

도입되었으며 교정시설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된 점에서 그 특수성이 더욱 부각된다. 2020년 10월 26일 첫 대체복무요원이 소집되었고 〈표 13〉과 같이 24년 현재 15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면서 36개월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를 수행 중이다. 이 외에도 소집해제를 한 대체복무요원은 목포교도소 등 여러 기관에서 3박 4일(28시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교정기관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국가의 안보 및 병역 의무와도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적인 교정 행정 수행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관련 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정청 독립이 필요하다.

4. 직급 비율

2024년 기준 교정직 정복 공무원의 인원은 15,543명이지만 5급 이상의 인원은 487명으로 3.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비율인 14.6%(24,311명)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인원 비율이며 심지어 법무부 내 검찰직 8.6%(726명), 보호직 12.1%(341명), 출입국관리직 182명(6.9%)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원이 많은데 비하여 최고위 직이 교정 본부장(1급 상당)이라서 생긴 현상이다. 아래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교정 공무원 조직의 대부분이 6급 이하의 직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기형적인 직급 체계로 인해 교정관(5급)이 지휘하는 보안과 직원 수가 230명이 되는 경우(천안교도소, 2025.02.28.기준)가 대다수일 정도로 피라미드 모형 직급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직급을 향상시켜야 하고 교정본부장을 교정청장(차관급)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주요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15) 2024년 기준 160여 명 예비군대체복무요원 소집

〈표 14〉 법무부 내 직급별 비율(2024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            | 계                | 고위             | 3·4급         | 4급             | 4·5급           | 5급              | 9급               | 5급 이상            |
|------------------|------------|------------------|----------------|--------------|----------------|----------------|-----------------|------------------|------------------|
| 교정직              | 인원<br>(비율) | 15,543<br>(100)  | 19<br>(0.1)    | 7<br>(0.0)   | 65<br>(0.4)    | 37<br>(0.2)    | 359<br>(2.3)    | 6,105<br>(39.3)  | 487<br>(3.1)     |
| 검찰직              | 인원<br>(비율) | 6,009<br>(100)   | 26<br>(0.4)    | 19<br>(0.3)  | 118<br>(2.0)   | 73<br>(1.2)    | 474<br>(7.9)    | 842<br>(14.0)    | 726<br>(8.6)     |
| 보호직              | 인원<br>(비율) | 2,815<br>(100)   | 6<br>(0.2)     | 7<br>(0.2)   | 54<br>(1.9)    | 21<br>(0.7)    | 253<br>(9.0)    | 604<br>(21.5)    | 341<br>(12.1)    |
| 출판직              | 인원<br>(비율) | 2,643<br>(100)   | 6<br>(0.2)     | 4<br>(0.2)   | 29<br>(1.1)    | 11<br>(0.4)    | 132<br>(5.0)    | 529<br>(20.0)    | 182<br>(6.9)     |
| 국가<br>공무원<br>일반직 | 인원<br>(비율) | 166,396<br>(100) | 1,206<br>(0.7) | 891<br>(0.5) | 3,509<br>(2.1) | 2,877<br>(1.7) | 15,828<br>(9.5) | 37,209<br>(22.4) | 24,311<br>(14.6) |

5. 해외 교정기관의 독립 여부

〈표 15〉 주요 국가 교정조직 운영 현황(2024년 기준)

| 국가           | 운영형태    | 부처     | 교정조직   | 인사·예산<br>독립여부 | 교정시설  | 수용인원      |
|--------------|---------|--------|--------|---------------|-------|-----------|
| 남아프리카<br>공화국 | 독립부처    | 교정부    | 교정부    | O             | 235   | 105,474   |
| 영국           |         | 법무부    | 교정보호청  | O             | 120   | 79,409    |
| 캐나다          |         | 공공안전부  | 교정청    | O             | 216   | 32,261    |
| 네덜란드         |         | 법무부    | 교정청    | O             | 49    | 14,789    |
| 스웨덴          |         | 법무부    | 교정보호청  | O             | 79    | 7,713     |
| 홍콩           | 외청      | 지역행정부  | 교정청    | O             | 24    | 7,751     |
| 미국           |         | 법무성    | 연방교정국  | O             | 4,455 | 1,767,200 |
| 프랑스          |         | 법무부    | 교정국    | O             | 187   | 62,385    |
| 독일           |         | 주정부법무부 | 주정부교정국 | O             | 179   | 72,377    |
| 이탈리아         |         | 법무부    | 교정본부   | O             | 206   | 57,230    |
| 노르웨이         | 부처 내 본부 | 법무부    | 교정본부   | O             | 33    | 3,708     |
| 대한민국         |         | 법무부    | 교정본부   | X             | 55    | 62,514    |



<표 15>와 같이 해외 기관들의 교정의 인사와 예산 독립 여부나 조직 형태를 검토해 볼 때 해외 다수의 나라가 교정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교정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정청으로 독립 후 독자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IV. 교정청 독립의 기대 효과

### 1. 교정 정책의 독립성 강화

교정 행정은 단순한 형 집행을 넘어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 정책은 법무부의 행정적 통제 아래 있어 독립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교정청으로 독립시 법무부로부터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교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정 정책이 법무부 내 다른 업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교정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교정 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현재 교정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교정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정사고가 증가하여 교정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교정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교정청으로 독립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교정 공무원의 인사·승진

체계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경찰·소방과 같은 제복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승진·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교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3.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현재 교정본부의 예산은 법무부 내에서 검찰과 함께 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 교정청이 독립될 경우 기관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산 편성에 유리해지고 교정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도 용이해진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며 교정 공무원의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재정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4. 교정 시설의 현대화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교정 시설의 현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정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은 과밀 수용 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형자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태이다.

교정청으로 독립시 교정 시설 확충을 위한 독립적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 현대화가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교화·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5.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 확보

현재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재판)은 모두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지만 형 집행을 담당하는 교정 행정만이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남아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성을 해치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16) 김안식, 교정청설치 추진에 관한 소고(2023), 38면 참고, [www.prisonstudies.org](http://www.prisonstudies.org) 참고



교정청으로 독립함으로써 형 집행 역시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과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V. 교정청 독립 추진 현황과 실행 방안

### 1. 과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황

#### (1) 2005.06.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 의원 등 29인)

최근 급변하는 사회양상에 따라 범죄자 계층, 범죄수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교정행정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특히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한 재사회화가 교정행정의 주요 목적으로 등장하면서 매년 업무가 급증하고 교정의 세계화·사회화 추세에 맞추어 산하 교정행정조직이 방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조직은 법무부 소속 1개국(교정국)<sup>17)</sup>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교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산하 교정조직을 체계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2013.02.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17) 2007.11.30.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에서 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확대 개편됨

#### (3-1) 2017.06.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0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더 나아가 교정본부는 56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경찰청, 국세청, 소방본부에 이은 조직규모로서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음.

이에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고,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3-2) 2017.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 (4-1) 2020.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더 나아가 교정본부는 57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경찰청, 국세청, 소방본부에 이은 조직규모로서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음.

이에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 (4-2) 2020.07.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수용 관리와 교육·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1만 6천여 명의 교정 공무원이 5만4천명 이상의 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범죄자의 수용 관리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교정 업무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산하의 본부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5) 종합

교정청 독립을 위한 논의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5년 교정국을 독립 외청으로 독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고 이후 2013년, 2017년, 2020년에도 유사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교정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교정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무부 내 본부급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같이 독립된 외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증가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교정 정책 수립을 위해 교정청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2. 교정청 독립 실행 방안

### (1) 법률 개정·제정

교정청을 외청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교정청 독립을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며 이 외에도 교정 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도관 직무규칙을 대체하여야 한다.<sup>18)</sup>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④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둔다

(신설) ⑤ 교정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교정청 조직 개편 방안

교정청이 외청으로 독립될 경우 조직 개편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본부급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행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독립된 교정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무부 내에 있는 인권국, 감찰담당관실 등을 교정청 산하 조직으로 인사·감찰국, 교정시설 관리국 등으로 편성하여 교정청 자체적으로 인사와 감찰을 하도록 하고 예산·재정국을 편성해 독립 예산 편성 및 자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 (3) 교정 공무원의 인사·승진 체계 개선

현재 교정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 체계는 법무부 인사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소방청과 같은 독립 외청과 비교했을 때 자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운 구조이다. 승진 기회의 불균형, 조직 내 인사이동 제한, 근무 환경 열악함, 승진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정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정 공무원의 이직률 증가 및 조직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교도관 직무에 관하여 법률에 위임하였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교도관직무규칙으로 법무부령으로 존재하고 있음



교정청으로 독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승진 시험 체계 개편 : 경찰청·소방청과 유사한 승진 시험 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
- 근무 환경 개선 : 교정 공무원의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해 인력 충원 확대 및 완전 4부제 정착
- 복지 및 보상 확대 : 경찰·소방 수준의 복지 정책 도입 및 직무 위험수당 증

#### (4)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정청 독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교정 행정의 중요성과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국회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교정청 독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미디어 및 SNS 홍보 강화**  
언론,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교정 행정의 중요성과 교정 공무원의 업무 실태를 적극 홍보한다.
- **대국민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교정청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 **정치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국회의원, 법조계, 교정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 VI.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적 독립성이 제한되고 예산 및 인사 운영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같은 유사한 법집행 기관들이 독립청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정청 독립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며 형 집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다. 독립된 교정청은 교정 행정에 특화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승진 제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정을 통한 교정청 독립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조직 개편 및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정 시설 개선 및 교정 행정의 현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더불어 교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여 교정청 독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는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연구 및 관련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의 지지를 확보한다. 2단계는 조직 개편과 예산 독립 체계를 구축하고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교정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로는 독립된 교정청의 운영을 개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교정청 독립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맞추고 교정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필수적 개혁 과제이다. 이를 통해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용자 처우 개선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며 교정시설을 현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형 집행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교정청 독립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교정 행정의 발전과 형사사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2025교정통계연보  
2024국회예산처 예산안 총괄 분석  
김안식, 교정청설치 추진에 관한 소고(2023)  
박영규, 교정청독립의 필요성(2013)  
김태훈, 교정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2012)



# 마약류 수형자의 —— 인지적·정서적 재범 촉발 특성(하)

-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접근 -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1.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2. 재범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3. 최초의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4.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IV. 연구 결과

### 3. 최초의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재투약을 유발하는 단서(예: 특정 장소, 사람, 감정 등)와 마주한 후 처음으로 재투약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약을 다시 하고 싶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적인 저항도 함께 작동한다. 이때 일어나는 사고 및 정서로는 투약에 대한 강박적 사고, 투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성적 저항, 단약 기간에 대한 아까움,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설득, 투약 실행에 대한 구체적 사고, 약을 사용한 직후의 즉각적인 후회, 반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적 체념 등 7개의 주제 결집으로 분석되었다.

#### (1) 투약에 대한 강박적 사고

단약 유지 중에 재투약을 촉발하는 단서와의 접촉했을 때, 동시에 투약을 향한 강박적이고 강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투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그 생각을 멈추거나 제어하는 것을 시도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갑자기 통화가 오고, 한 번 하고 전화 끊었는데, 그게 약이 내 눈앞에 없고 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가, 폰 너머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드는 순간, 뭔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확 바로 생각이 머리에 탁 꽂히더라고요. 참다가 참다가 이런 게 진짜 아니고요.”(참여자4)

#### (2) 투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성적 저항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투약의 유혹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갈등하는 이성의 저항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단약을 선택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투약을 갈망하는 자신의 내적 상태가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자각을 가지는 상태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투약에 대한



저항은 과거 마약류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났던 부정적 경험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엇보다 제가 몇 번 징역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하면 걸리면 징역 가는데, 가족이 또 알면 또 실망할 텐데.”(참여자7)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투약에 대한 저항은 단약을 했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긍정적 경험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갈등은 있었어요..... 쪽 안 해도 충분히 생각보다 나 잘 지냈는데 이런 느낌 안 해도 재밌게 살 수 있는데.”(참여자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 저항을 유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혼란에 가까운 형태이거나 또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대한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수동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저항한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이거 하면 잘못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고 이거 하면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 투약을 해버리더라고요.”(참여자7)

### (3) 단약 기간에 대한 아까움

연구 참여자들은 유혹에 굴복하여 재투약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단약에 대한 아까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을 하는 동안 각자 나름의 성과라고 여겨질 만한 표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재투약으로 인해 그 의미가 훼손되거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단약의 기간에 대해 의미를 두고, 그것을 좀 더 길게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다.

“첫 투약, 사실은 좀 아까웠어요. 6개월 동안 참았던 게. 육체적인 기분은 되게 좋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한 6개월 동안 참았는데 좀 아깝다.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여태까지 했던 거 좀 아깝고.”(참여자1)

일부 참여자들은 단약을 유지한 신체에 의미를 두고, 단약으로 인해 깨끗하고 건강해진 몸을 약으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느꼈다.

“그냥 그 4년이 아까웠다, 내가 자의든 타의든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까. 난 진짜 참고 안 했으니까. 담배도 안 뿔고 마약류도 안 했으니까 내 몸이 아까웠던 거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담배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내 몸이 망가질 걸 아니까, 아플 걸 아니까, 그 생각이 컸던 거죠. 내 몸 건강한데. 근데 그 생각도 몇 시간을 못 이기는 거예요.”(참여자8)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을 통해 형성한 긍정적 자아상과 주변인들로부터 쌓은 신뢰에 의미를 두고, 재범으로 인한 자아상과 신뢰의 무너짐을 예상하며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다.

“내가 이때까지 잘 버텼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노력을 보고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출소하고 나서 이때까지 믿어주고 대화해 왔던 거, 이것들이 너무 좋은데, 나도 이제 진짜 단약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애도 키우면서, 근데 그 생각이 엄청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4)

### (4)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설득

재투약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투약 이후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기 설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면 잡히고, 교도소 가고, 뺨한 걸 아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지’이런 생각 들더라고.”(참여자4)

## (5) 투약 실행에 대한 구체적 사고

연구 참여자들은 투약을 촉발하는 단서를 접촉했을 때, 투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서와 접촉하여 투약 욕구를 느낄 때, 투약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절차들과 노력을 빠른 속도로 제시하는 사고가 일어나며, 이는 단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들과 동시에 일어난다.

*“주사기 담아져 있는 걸 봤을 때, 에스와 노의 생각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이걸 참아야 해 하면서도 딴 쪽에서는 하고 난 후에 생길 일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참여자3)*

## (6) 약을 사용한 직후의 즉각적인 후회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투약 직후 밀려오는 후회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괜히 했다 싶죠. 처음에 했을 때.”(참여자3)*  
*“바로 전화해 가지고 한 개 줘 봐라, 이래 가지고..... 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안 했는데, 약 하자마자, 바로 후회되더라고요.”(참여자4)*

## (7) 반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적 체념

연구 참여자들은 투약 직후에 시간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체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을 선택한 주체로서의 나를 실감하고, 실제로 재발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며, 단약 상태를 추구하던 나의 실패를 확인하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시 중독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반복된 투약과 연결된다.

*“절제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성취감이나 이런 게 있는데, ... 한 번 딱 놓으니까 확 너머리게 되죠.”(참여자1)*

## 4.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재투약을 한 후 약물의 효과가 사라지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공허함과 후회가 밀려오게 되고, 이때 이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며, 자신이 다시 재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큰 혼란을 겪는다. 이때 나타나는 사고 및 정서로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는 좌절감, 재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따른 내적 갈등, 재투약 이후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 자신이 다시 단약 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 등 4개의 주제 결집으로 분석되었다.

### (1)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는 좌절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최초의 재투약 이후 허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초의 재투약 이후 대부분 단약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단약 상태의 추구가 최종적으로는 실패이고 그동안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에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한번 넣고 나면은 그때 잠간은 불안하고 그렇죠. 이거 또 정역가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잊혀지고..... 가면 가더라도 뭐 시원하게 하자 이제 그때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해도 이제 그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참여자3)*

### (2) 재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따른 내적 갈등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최초의 재투약 이후에도 재발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투약에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재투약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투약 촉발 요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다소 비자발적인 선택, 즉 일종의 ‘실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이다. 두 번째 투약부터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자신이 중독자로 살 것인지 고민하는 장면이 있었다.

*“첫 투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첫 투약 이후 몸을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두 번째 투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두 번 가면*



세 번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평생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좀 갈등을 좀 많이 했는데.”(참여자1)

### (3) 재투약 이후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마약류 사범 전과자로, 수형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마약류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상황들을 겪은 이들이다. 재발은 보는 관점에 따라 재범과 동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투약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변화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가지는 생각들을 경험하였다.

“당시에 그냥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족 뒤 지인들도 만약에 이번에 내가 또 잘못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거를 생각하고 저지른 거죠. 만약에 이번에 잘못되면 그럼 내가 안고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참여자8)

### (4) 자신이 다시 단약 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최초의 재투약 이후, 단약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약 중에 투약 촉발 요인으로 인해 재투약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여전히 단약을 해야 할 이유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실수의 개념을 가진 재투약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개인적 실패도 수용해야 하지만, 재범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은 개인의 단약 재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제가 사실은 계속 챗바퀴 못 끊고 계속 돌고 있냐면요, 이미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안 했어요. 오늘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 없애주냐 이거예요. 나 이제 끊었는데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먹고 안 하고 있는 시간 동안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내가 그 뒤로 실수를 인정하고 단약을 해도 난 범죄자잖아요.”(참여자8)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들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질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단약 결심과 유지, 재발의 원인 및 재투약의 심리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내 8명의 마약류 수형자들이 재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고 및 정서의 변화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범주와 21개의 주제 결집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마약류 중독 행위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형자 개인이 경험한 복합적인 심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마약류 재범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마약류 중독자가 단약과 재발 사이에서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 실패와 회복의 반복, 사회적 낙인과 자기 부정 등의 심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특히 수형자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개인이 어떻게 외부적 제약과 내부적 동기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반응하는지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약 결심 및 유지에 관한 사고와 정서의 범주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류에 중독된 뒤 단약을 결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간을 가졌다. 단약을 결심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 사고와 정서는 평범한 삶의 소망, 왜곡된 시선에 대한 불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수형생활 반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이나 가족과의 약속, 가장의 책임을 유기한 경험 등이 동기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었고, 중독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음을 경험했다. 그 시선은 가깝지 않은 타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가족처럼 중요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도 있었다. 왜곡된 시선은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느낀 불편감과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는 단약의 동기가 되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 중독자들은 마약류와 관련된 지인들로 인간관계가 축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유숙경, 2020; 정주연 등, 2024). 축소된 인간관계 안에서 약물로 인한 지인의 사망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까운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시켰다.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는 중독생활을 오래 유지하면서 건강 상태와 생활 수준이 좋지 않은 노년기의 모습을 보고 경계의 마음을 가졌으며, 반복된 투약으로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인지하면서 마약류가 가진 부정적 영향력을 실감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약류가 원인이 된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건강에 대한 염려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서 기인한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수형생활을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했으며,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에게 다시 마약류를 하는 것은 수형 생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의미하므로 단약에 대한 타율적이지만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의지 단계에 따라 일부 마약류 사범들의 재발을 위해서 마약류의 영향력이 가진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초범과 다르게 재범인 경우는 단약의 필요성을 좀 더 무게감 있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하게 될 때 개인에게 초래하는 일들에 대해 정확한 조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약물에 의해 먼저 신체의 건강을 잃고 이후 정신의 안녕을 잃어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의학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러한 사고와 정서를 인지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기법을 통해 보다 내면화된 단약 동기로 전환하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하다(신희천, 2018).

둘째, 재발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및 정서에 대한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중독에 대한 몰이해, 부정적 감정의 회피, 성생활을 위한 필요성, 무료함으로부터의 탈피, 단약 기간에 대한 만용 등의 영향으로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독성과 중독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는 단약을 단순히 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간에 따른 성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신이 이미 단약이라는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약의 유혹을 느꼈을 때, 다시 약을 해도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으며 이는 재발로 연결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 기간 중에 일상의 곤란함들을 만났을 때, 과거 마약류의 힘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마약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조절해야 할 때, 또는 무료함 같은 정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약의 필요성을 느꼈다. 성생활 같은 일상적인 요소에서도 과거 마약류를 한 상태의 증폭된 쾌락이 성생활이 기준이 되어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재발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약류 사범들의 재발을 위해서 중독현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마약류 중독자들이 신체와 정신이 제어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보고하고 있다(최미경, 2023).

약물과 중독현상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재발할 확률이 많은 단약시도로 연결된다. 성공적인 재발을 위해서는 단약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약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타인지화된 실질적인 훈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단약에 대한 의지와 행동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게 될 시행착오들을 개인들 스스로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함께 갖추어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을 단순히 쾌락의 수단이 아닌 교감과 소통의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개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CBT에서는 자동적 사고 기록지(Thought Record Sheet)를 활용해 인지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정서 조절을 위한 기술을 병행함으로써 감정 기반 재발을 줄일 수 있다(James, 2015).

셋째, 최초의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의 범주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을 결심하고 유지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시 약의 유혹을 느끼게 되었다. 유혹을 느끼면서도 단약을 유지했으나, 재투약을 결정하게 되는 촉발 사건을 만나고 결국 재투약을 하게 된다. 이 기간은 개인에 따라 매우 짧은, 찰나의 시간일 수 있다. 재투약 촉발 단서를 접촉 후, 단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투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고와 정서로 투약에 대한 강박적 사고, 투약에 대한 이성의 저항, 단약에 대한 아까움, 비현실적 자기 설득, 실행적 사고, 즉시적 후회 시간적 체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촉발 단서를 접촉하면서 투약의 가능성이 가깝게 느껴지자, 투약을 해야한다는 생각들이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일어나며 사고의 흐름을 제어하기 힘들음을 경험했다. 또한 약을 구하는 등의 투약을 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절차와 행동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구상되고 계획되는 경험을 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바와 일치한다(김거성, 2015; 최미경, 2023).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 단약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투약을 갈망하는 상태가 지금까지 노력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내적 상태를 추적하는 일종의 정신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그와 함께 단약의 계기들을 상기하고, 단약 과정에 투여된 노력들을 ‘아까움’이라는 의미로 표현했다. 이들은 재투약에 대해 올바르게 옳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였고, 촉발 단서의 접촉에 의한 갈망을 처음에 물리쳤던 사람도 그 접촉이 두세 번 반복되었을 때 재발이 일어난 것은 그러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속이나, 주위의 비난처럼 과거 단약의 계기가 되었던 부정적 경험들에 대해, 재투약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된다는 비현실적인 자기 설득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설득된 이후 양가적 상태는 종결되고 재투약이 결정된다. 재투약은 그 간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결정이므로 투약 직후 연구 참여자들은 바로 후회했으며,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체념으로 단약의 의지는 최종적으로 말살된다. 연구 참여 자들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일어나 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고와 정서의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마약류 사범들의 재활을 위해서 재투약 촉발 단서에 대한 선행교육과, 촉발 단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며 효과성이 있는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러 중독 매체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재발을 촉발하는 단서에 대해 뇌의 반사적 반응을 말하고 있다(김진숙, 2020).

결국 뇌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의 고리를 끊는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법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사범의 회복의지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서 언급한 훈련들에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단약을 유지하고 재투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 노력에 대해 자기애와 자기 돌봄 같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심리치료 또는 상담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충동성(impulsivity)과 인지-정서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CBT에서는 충동조절 훈련(Impulse Control Training)과 위기 대처 계획(Relapse Prevention Plan)의 핵심 시점으로 간주(Marlatt & Gordon, 1985)된다. 개입 전략으로는 ‘생각-감정-행동’ 연결을 시각화하는 ABC모형을 적용하여 충동과 실행 사이의 인지적 간극을 확보하도록(조중현 등, 2013)하고, 재투약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상황’에서 사용할 인지적 자기대화 기술(예: “이 순간은 지나간다”, “이 건 나의 패턴일 뿐이다”)을 사전 훈련하며, 재발 후 즉각적 후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자비(self-compassion) 접근 병행(Kristin, 2003)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에 대한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재발 사건, 즉 최초의 재투약 이후 모든 노력이 무너짐, 재발 인정에 대한 고민, 변화된 현실 이해, 단약 의지 증명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먼저 모든 노력이 무너짐에 대한 허탈감을 경험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최초의 재투약을 실수로 바라보고 두 번째 투약을 자기 의지로 결정하면서 중독자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재발을 실패로 여기고, 그동안의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단약을 다시 이어갈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비록 촉발 단서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재발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발은 곧 재범을 의미하므로, 연구 참여자는 범법을 저지른 범죄자

신분이 되었다는 변화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로 수용자 신분이 된다. 마약류 사범들의 지속적인 재활 접근을 위해서는 단약을 약물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노력의 의미로서 이해해야 하며, 재발 또한 노력의 과정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라는 개념으로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단약을 시도한 이가 재발하게 되었을 때 재발 사건을 다음 단약을 위해 자신의 취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는 기회로 삼고 재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일 때 중독 문제를 질병과 치료의 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좌절 신념(relapse beliefs)과 자기 무가치감(self-worthlessness)의 정서로 연결되며, 다시 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구성한다. CBT에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재발 후 개입(Post-lapse intervention)과 자기효능감 회복(Efficacy Recovery)전략을 중점적으로 적용(Marlatt & Donovan, 2005)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재발을 실패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재구성하여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수정(Black et al., 1993)하고, 단약 기간 중 성취했던 긍정적 경험을 회상하며 자기인식 재구성(Self-reappraisal)을 통해 낙인감과 자기혐오를 낮추는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K 지역 교도소의 남성 마약류 수형자(필로폰 투약)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교도소 및 여성 마약류 수형자를 모집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마약류 사용 경험과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교도소 내 생활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응답에 거짓으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가족이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될 것이다. 셋째,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로, 출소 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범을 하였거나 마약류를 끊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소 이후의 생활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재범 예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로는 교도소 내 마약류 수형자의 심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지·정서적 재범 촉발 요인을 분석하고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거성, (2015), '필로폰 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나연/음영지/김교현, (2019), '여성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약물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 감성과학 제22권 4호, pp.75-84, 감성과학회.

김남희/서정민, (2012), '마약류 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4호, pp.175-204.

김정수/박진우, (2021),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중독 제27권 2호, pp.67-92, 한국중독심리학회지.

김진숙, (2020), '여성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재발 경험에 대한 연구', 제20권 4호, pp.673-68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김현정/박준수/이영애, (2015),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감정조절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 제12권 3호, pp.45-62, 한국중독심리학회.

김창우/박은영, (2024),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제안', 제31권 3호, 교정연구 pp.48-54, 한국교정학회.

대검찰청, (2025), 마약류 범죄백서.

법무부 교정본부, (2024),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법무부 교정본부, (2025), 교정통계 연보.

설재용/이장한, (2023), '초범 약물남용자의 TCI 기질 및 성격 프로파일 특성', 중독 제8권 1호, pp.19-43, 한국중독심리학회.

신희천, (2018), '인지행동치료가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임상 제34권 1호, pp.45-63, 한국임상심리학회.

이호, (2019), '수용전념치료(ACT)가 알코올중독자의 심리적 유연성과 자기 자비 및 회복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12호, pp.604-614, 한국콘텐츠학회.

유숙경, (2020), '교정시설에 중인 남성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사용 경험 연구: 근거이론 접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유숙경/이삼영, (2023),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근거이론 연구', 교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교정학회.

유상진, (2022), '마약류 사범을 위한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연구', 한국교정학연구 제17권 3호, pp.30-54, 한국교정학연구회.

이소영/조현주/권정혜/이종선, (2018), '폐배감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식과 속박감의 순차중다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제14권제2호, pp.285-303,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장안식/정혜원/안윤숙, (2016),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재범 태도에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pp.211-233, 한국교정학회.

정주연/금창민/조항, (2024), '여성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정: 근거이론 접근', 상담학연구 제25권 6호, pp.239-266, 한국상담학회.

조정우, (2019), '마약류 투약자 중심의 마약류수사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2호, pp.53-66, 한국범죄심리학회.

조중현/손중락, (2013),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프로그램이 마약류 중독자의 우울, 충동성 및 단약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32권 1호, pp.13-31, 한국심리학회.

최미경, (2022), '단약중인 마약류 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정담론 제16권 3호, pp.1-31, 아시아교정포럼.

최민석, (2019), '마약류 사범의 교정 프로그램 한계와 출소 후 지원 방안 연구', 교정담론 제29권 4호,

pp.101-123., 아시아교정포럼.

■ 외국문헌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Black, D. W. Wesner, R. Bowers, W. Gabel, J. (1993). 'A Comparison of Fluvoxamine, Cognitive Therapy, and Placebo in the Treatment of Panic Disorder', JAMA Psychiatry 50(1), 44-50, Arch Gen Psychiatry.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a phenomenologist viewsit', In: Valle, R. S.

Kandel, D. B. Yamaguchi, K. & Chen, K. (1992). 'Stages of progression in drug involve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further evidence for the gateway theory', 53(5), Pages 447-457,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Dobson, K. S. & Dozois, D. J. A. (2019).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New York: Guilford Press.

Elison-Davies, Newsome, J. Jones, A. Davies, G. & Ward, J. (2022).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risk factors, and changes in substance dependenc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during engagement with digital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methamphetamine use', 10(1), 28, Health & Justice.

James, J. G. (2015).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Guilford Press.

Kandel, D. B. & Chen, K. (2000), 'Types of marijuana users by longitudinal course', vol. 61, no. 3, pp. 367-7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Kristin Neff. (2003).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Volume 2(2), pp.s 85-101.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A self-control Strategy for the maintenance of behavior change.', pp.85-101, New York:Guilford.

Marlatt, G. A. & Donovan, D. M. (2005). 'Relapse Prevention: Maintenance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Addictive Behaviors', Second Edition, The Guilford Press New York London.

Meichenbaum, D. (1977). 'Cognitive behaviour modific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6(4), 185-192, Springer Science.

NIDA. (2022). 'Monitoring the Future Survey: High School and Youth Tren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Macmillan Pub Co.

UNODC. (2023). 'World Drug Report 202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24). 'World Drug Report 202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기타자료

마약류퇴치운동본부, <https://www.drugfree.or.kr> (검색일 : 2024. 12. 21.).

통계청, <https://www.kostat.go.kr> (검색일 : 2024. 12. 21.).

세계보건기구, <https://www.who.int> (검색일 : 2024. 12. 23.).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 <https://www.samhsa.gov> (검색일 : 2024. 12. 23.).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13주년 추계학술대회 참석 및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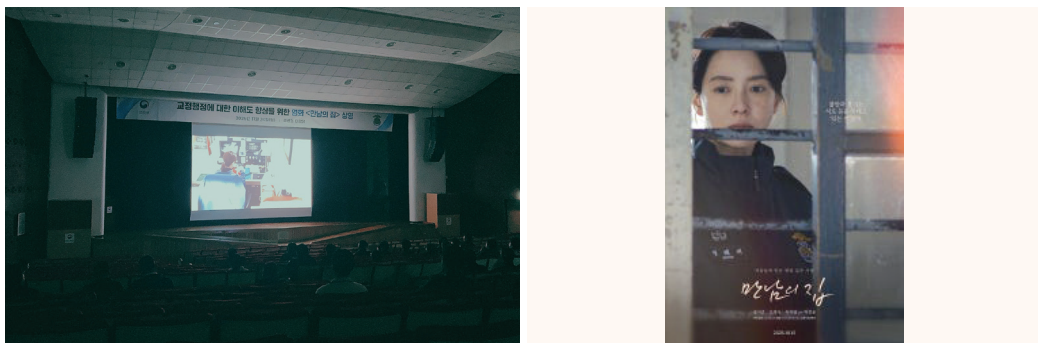
**일시·장소** 11. 14.(금) 13: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 석 자**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 (축사)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 (주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성운 국회의원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주 제** AI 대전환 시대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 정책의 역할

### 2025년 하반기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및 축하



**일시·장소** 11. 20.(목) 14:00, 동국대학교(서울 중구)  
**참 석 자** 교정본부장, 한국교정학회장 등  
 ※ (축사) 교정본부장  
 ※ (주최) 한국교정학회,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사회안전교육원  
**주 제** 한국과 일본의 노인수형자 처우의 현황  
 ※ (발표자) 대전(청) 분류센터 교감 박순용

### 교정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영화 상영



**일시·장소** 11. 24.(월) 14:00, 대강당  
**참 석 자** 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 대상  
**상 영 작** 영화 <만남의 집>  
**주요 내용**

- 교정정책(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이해도 형성
- 교정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 교도작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일시·장소** 11.27.(목)~11.28.(금),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군)  
**참 석 자**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등 7명  
 (소속기관) 전국 교정기관 직업훈련과장 등 75명  
**주요 내용**

- 교도작업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
- '교도작업 안전관리 체제', '안전사고방지회의' 운영 설명 등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창훈

####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11월 18일 소회의실에서 고위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전문강사인 김근국 교감(안양교도소)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 전개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녹향원에서 보라미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태형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과 모범수형자 및 11월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수형자 10명이 참여했다.

###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만안지구 참관행사 진행

안양교도소는 지난 11월 19일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만안지구 회원 대상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용동 등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의 실제 운영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의 역할과 교도관들의 노력을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 수원구치소 | 교위 이승

####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수원구치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3일간 교정협의회 교정위원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수용자 가족에게 전달할 1,500포기 분량의 배추를 직접 손질하고 버무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 APCCA 대표단 대상 시설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11월 13일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

장회의(APCCA) 참석 대표단을 대상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긴급대응팀(CERT)의 전술 시연을 시작으로 중앙통제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인천구치소 | 교사 장경준

#### 인천지방법원 관계자 시찰 진행

인천구치소는 지난 11월 6일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 39명을 초청, 시설 시찰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스마트진료센터 등 주요 시설과 교정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 경기대 학생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행

서울남부구치소는 11월 7일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학생들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기회가 됐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 APCCA 대표단 대상 시설 참관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1월 12일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참석 대표단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제과제빵 및 한식조리 등 직업훈련 과정을 견학하며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 수용자 감사쓰기 전시회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한 ‘수용자 감사쓰기 공모전’ 수상작 13점을 민원실에 전시하고 있다. 앞서 수용자들은 가족과 교도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표현하며 성찰의 기회를 가진 바 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등 대상 참관행사

여주교도소는 지난 11월 6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처인지구협의회와 고령중학교 학생 등 20명을 초청,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수용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최승선

#### 나누리 봉사동호회 캠프행사 진행

서울남부교도소 나누리 봉사동호회는 지난 11월 1일 사회복지시설 ‘에델마울’의 어린이들과 함께 특별한 캠프행사를 진행했다. 시흥시 소재 물왕숲캠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남운성

#### 서울청 주관 교정위원 간담회 참석

춘천교도소는 지난 11월 5일 서울지방교정청 주최로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린 교정위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정·교화에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 원주교도소 | 교사 고진솔

#### 연탄 나눔 봉사·환경정화 캠페인

원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8일 봉화산 둘레길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고, 지역 취약계층 37가구를 방문해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단은 직원 및 교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원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 지역 농가 일손 돕기에 구슬땀

강릉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11월 19일 강릉농협 및 교정위원 등과 함께 성산면 단호박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수용자의 사회복귀 의식 제고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 장애인 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진행

영월교도소는 지난 11월 18일장애인 복지시설 예담원에서 ‘보라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수용자·직원·교정위원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시설 내·외부 환경미화 등을 통해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을 보탰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이수영

#### 설운중학교 대상 참관행사 진행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11월 12일 속초 설운중학교 학생 15명을 초청,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앙통제실, 자치수용동, 직업훈련장 등을 둘러보며 교정시설의 역할과 수용자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손운근

####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11월 12일 수원지방경찰청 평택지청과 도주사고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조사받던 수용자가 수사관의 카드키를 훔쳐내고 계호 중인 교도관을 밀쳐 넘어뜨린 뒤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 소망교도소 총무과 | 교도 박성호

####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개최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개청 15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명성교회 글로리아커뮤니티센터(GCC)와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상의 빛·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11월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박은주 전문강사를 초빙,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도와 긍정적 인식 제고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 진행

대구교도소는 지난 11월 12일 배우 손지나 씨를 강사로 초빙, 직원 대상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연극 인문학 강사인 손 씨는 이날 강의를 통해 공직윤리, 인간 중심적 사고 회복,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교정행정 구현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 긴급 출동 및 진압 훈련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 11월 14일 좋은삼선병원 일대에서 도주사고 대비 긴급 출동 및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은 긴급출동차량 운영 계획에 따른 현장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송락

####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 진행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1월 15일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 운동장에서 총 9개팀이 기량을 뽐냈던 이번 대회에서는 안양교도소와 광주교도소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 경남대 심리학과 학생 참관

창원교도소는 지난 11월 4일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을 대

상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현장에서 시행 중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학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 신규 공업서기보 임용

부산교도소는 지난 11월 10일 공업서기보 전경호 직원의 신규 임용식을 개최했다. 주정민 소장은 이날 "부산교도소에 임용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동료들의 도움 속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는 지난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를 위해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해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 전달식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 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 FTX 침투 대응 훈련 실시

전주교도소는 11월 12일 교정시설 내에서 FTX(마약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1117공병단 중사배소현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적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시설 파괴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다.

###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 외부강사 초청 인권교육

대구구치소는 11월 6일 인권 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장관식 소장은 교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 및 사건 처리 과정 등을 소개하며 교정시설 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 지역 국립공원 자연정화 활동 전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1월 5일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가을철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약 20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산로까지 비닐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 수용자·직원 함께 농가 봉사활동 펼쳐

안동교도소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옥

#### 교정위원 유희숙 목사 전자피아노 기부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11월 12일 유희숙 목사로부터 전자피아노 1대를 기부받았다. 우목사는 수용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유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긍정적 변화와 자아 회복을 돕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 사회복귀 지원 위한 뮤지컬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11월 20일 소년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올해 3월부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 온 결과물로, 소년수용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펼쳐 보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 신규 교정직 대상 실무수습 진행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규 교정직 9급(제3047기) 교육생 배선아(女)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했다. 배 교육생은 각 과의 업무를 체험하고 선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실습 과정을 밟았다.

### 울산구치소 | 교사 박준규

#### 신축 수용동 개청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지난 11월 25일 과밀수용 해소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추진된 증축 수용동 개청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마련된 수용동은 조사·징벌 기능의 복합 수용구역으로 구성, 호화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주교도소 | 교위 강태훈

#### APEC 성공개최 기원 플로깅 실시

경주교도소는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10월 28일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은 경주 보문단지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 에브리타임 화합의 날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11월 19일 '에브리타임' 장애인복지시설과 함께 화합의 날 행사를 구치소 풋살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과 시설 이용자가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진행

밀양구치소는 지난 11월 13일 대회의실에서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직원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반문경 강사는 이날 “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동료나 수용자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9일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상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 진압

훈련과 소방장비 사용법 교육이 동시 진행됐다. 특히 양압식 공기호흡기에 대해 배우고 익힌 이번 교육은 안전한 화재진압 및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체포·제압술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11월 19일 대강당에서 체포·제압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체력 증진과 대응 기술 단련을 통해 수용자 계호 시 직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신체 안전 확보 및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11월 12일 교정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선교중앙교회의 이현 목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이날 ‘교정시설 수용 과밀화의 현상과 대책’을 논의했다.



##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에티오피아 교도관 대상 참관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11월 14일 에티오피아 칼리티 여자교도소 메브라트 메코 부소장을 비롯한 교도관 6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 방문단은 이날 교정시설 운영 영상을 시청하고 수용자 관리 체계 등을 살펴본 후 한국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괴산 청안중서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기르는 동시에,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소명의식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백석대 경찰학부 대상 참관행사 진행

천안교도소는 지난 11월 11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문화센터와 가족 만남의집 등을 둘러보며 교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도관의 역할과 교정행정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영화 ‘만남의 집’ 상영회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11월 20일 교정가족과 지역주민 약 180명을 초청, 영화 ‘만남의 집’ 상영회를 열었다. 이로써 교도관의 역할과 교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품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취업 지원

공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2일 ‘2025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수용자 취업 연계를 진행했다. 7개 기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24건의 채용약정서가 체결됐다.



## 충주구치소 | 교사 이재민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11월 18일 조아라 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고 관리자로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신규 교정직 9급 현장실습 시행

홍성교도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규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을 시행했다. 실습생 2명은 무과보안과직업훈련과사회복지과복지과의료과 복무담당의 인솔하에,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했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경제범죄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수용자 42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생활과 법의식 확립’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전문가와 법학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경제범죄의 양상과 법적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진정민 제1회 풋살대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11월 17일 제1회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홍성교도소 직원 12명과 서산지소 직원 12명이 참여했으며, 직원들은 이날 친선전을 통해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외부 전문 강사 초빙 인권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11월 19일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조직 내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전은주 교정자문위원회의 위촉식 및 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1일 신규 교정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위촉장 전수, 임원 선출 등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정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광주교도소 | 교위 나사웅

### ‘가온 어린이집’ 대상 참관행사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1일 법무부 가온어린이집 선생님 6명, 원아 34명 구외 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장비를 직접 살펴보고 교도관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전주교도소 | 교위 최찬원

### 전주대 법학과 대상 참관 프로그램

전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8일 전주대학교 법학과 양광해 교수 등 33명에게 참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날 학생들은 법학 전공 학생들은 수용자 처우, 인권보호 프로그램 등 교정행정의 실제 운영 현장을 체험,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데이’ 운영

순천교도소는 11월 20일 교정위원 15명이 참여한 ‘멘토링 데이’를 실시, 수용자 대상 인성지도 및 진로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박주영 교정협의회장은 “멘토링 데이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 11월 17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실제 사례 기반의 이론 설명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응급 상황 초기대응 능력 등을 다졌다.

## 군산교도소 | 교사 문준호

### 교정위원 대상 참관행사 실시

군산교도소는 11월 5일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 11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관은 교정행정 홍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심리치료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 레몬농가서 보라미 봉사활동 전개

제주교도소는 지난 11월 17일 제주시 레몬농가(비닐하우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활동에는 수용자 9명을 포함한 보라미봉사단이 참여, 농협 제주본부와 함께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 장흥교도소 | 교도 한지현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남진119안전센터 관계자 18명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기관 간 소통, 환자 후송 및 화재진압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해남교도소 | 교위 방정환

### 수용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페스티벌 개최

해남교도소는 지난 11월 18일 ‘수용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초대가수 공연과 수용자 노래자랑 경연대회 순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수용자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 해남군과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회의 후원으로 성사됐다.

##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 수용자 외부기관 건강검진 실시

정읍교도소는 지난 11월 7일 수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영등포병원이 방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소변검사 등 기본 검진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검진은 수용자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기여했다.



## 모범 공무원



## 영월교도소 | 교위 홍정기

1997년 4월 임용 이후 28년 6개월간 공직자로 헌신해 온 홍정기 교위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각종 보안·계호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안양구치소 보안과, 대구구치소 출정 및 보안 업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비교도대 소대장 등 주요 보안 보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평소 성실한 근무자세로 상하 직원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구치소 근무 시 고위험 사범 출정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 포항교도소 | 교위 이교영

이교영 교위는 지난 10월 23일 수용자에게 응급 증세가 발생하자 즉시 상황을 전파해 의료과의 신속한 초기 진료를 이끌었다. 이후 수용동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던 이 교위는 수용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재차 진료를 요청, 외부병원 이송을 통해 뇌경색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 교위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교정사고 예방과 수용자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천안교도소 | 교감 곽한

곽한 교감은 지난 11월 3일 본형 확정 후 사실심 종료 사유로 이입된 수용자의 형 확정 정보를 검토하던 중, 제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3일이 추가형(제3형)에도 중복 산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관할 지방경찰청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형 집행지휘서를 정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형 집행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순천교도소 | 교도 신희섭

지난 2023년 1월 9일 임용된 신희섭 교도는 상훈·징계 업무를 진행하며 포상 대상자 후보 선정부터 각종 심사 지원까지의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직원 비위 발생 시 관련 자료 수집, 사실 확인, 징계 절차 진행 등 민감한 업무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며 조직 내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격월간 <교정> 칼럼 모집

격월간「교정」이 칼럼을 모집합니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노하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유롭게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들려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칼럼 투고 방법

### 주제

업무 노하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교정의 방향 등

### 제출 방법

격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로 원고 송부  
correct2023@naver.com

※ 제출 시 이메일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2025  
Census

# 2025 농림어업 총조사 11.20.~12.22.

인터넷 조사 | 11.20.~12. 10.  
방문 면접조사 | 12.01.~12. 22.



최정호씨의 답이  
국가간 어업협정 으로



차정환씨의 답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으로



장성호씨의 답이  
농기계  
임대료 할인 정책 으로



김동현씨의 답이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육성 사업 으로



박영철씨의 답이  
농촌 이동장터 운영 으로



김미경씨의 답이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으로

##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

###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

홈페이지 | [affcensus.go.kr](http://affcensus.go.kr)

콜 센터 | 080-360-2025 (무료) \*오전9시~오후6시 (주말포함)

